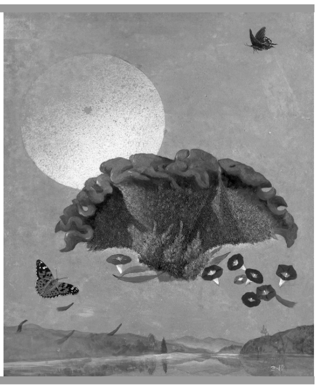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1 CTP175

계간 창 201407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CONTENTS



표지이야기
박동신 作, 월계관 40호 100×80.3㎝, 캔버스+혼합재료+장지, 2014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17회(서울, 부산, 광주). 1998년 제4회 광주 미술상 수상, 2008년 제3회 대동 미술상 수상.
한국미술협회, 한국권업미술가협회, 광주미술대전 초대작가.

여는 시
주머니에게 — 김 종

2 **'창'을 열며**
동아시아문화도시 광주를 생각하며…… — 이승권

3 **특집기획 – 민선 6기 문화정책 '길'을 묻다**
민선 6기에 바라는 문화정책 제언 — 류재한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민간 전문가로 — 남성숙
시민과 더불어 커나가는 문화예술 도시 광주를 위해 — 백승현
사람중심의 가치, 문화복지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 김기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란 멋진 '명석' — 이경윤
민선 6기 시대를 맞이한 청년문화발전을 위한 제언 — 윤현석

18 **문화인 탐구생활**
움직이는 상상력, 세상을 변화시키다 –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 김정희
몸으로 쓴 미술평론, 장석원의 『소통의 비밀』 — 변길현

23 **문화현장**
다른 그러나 같은 PEN 문인들 — 서용좌
낡은 서랍 속 스케치 — 광주여성재단

28 **문화진단**
리미니 프로토콜 '100% 광주' — 김종필
아시아예술극장과 광주예술 — 김도일

32 **문화조명**
동아사이문화도시에서 아시아문화포럼까지 — 정성구

36 **문화톡톡**
코끼리공화국은 어떤 곳일까? — 박지민
문화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할 보편적인 가치이다 — 염건이
광주정신을 담은 광주의 문화사회적경제 — 류동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 민인철

44 **재단·회원 소식** — 편집부

48 **임원현황·편집후기** — 편집부

발행인 백수인 **편집위원장** 김정희 **편집위원** 김원중 김향득 이향준 조덕진 김민정 강리정 **발행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주소** 501-023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금남로 3가), 삼호별관 2층
전화 062-234-2727 **팩스** 062-234-2728 **홈페이지** www.rcef.or.kr **디자인** 도서출판 심미안 **전화** 062-651-6968 **발행일** 2014년 7월 24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광주를 생각하며……

이승권_ 조선대 교수,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사용 울타리가 걷히자 전당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났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시민들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렸나! 아직 내부를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외형만큼이나 내부도 잘 구성될 것으로 믿는다. 분명 2015년은 "빛 고을"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2015년에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자웅을 겨루는 유니버시아드(Universiad)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된다. 젊은이들의 열기에 둘러싸인 광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올해는 광주가 대한민국 최초로 동아시아문화수도에 선정된 해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문화도시의 모델들이다. 이제 하나의 문화도시 모델만 인정을 받으면 문화도시 광주의 모습이 완성된다. 광주의 저력으로 볼 때, 그 날도 멀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1985년 시작된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이 아랍세계와 라틴아메리카를 거쳐 마침내 동아시아에 당도하였다. 2012년 아시아 주요 3개국(중국, 일본, 한국)은 2014년부터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목표가 교류를 통한 아시아문화의 허브를 추구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비전이 '열린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 아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의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아시아의 문화자원이 세계와 교류되는 아시아 문화의 허브를 지향한다. 이러한 시점에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동아시아문화수도에 선정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예향"이며 "빛 고을"인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전당의 완공을 목전에 두고 동아시아문화도시 시민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무엇보다도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 광주의 파트너로 선정된 취안저우는 마르코 폴로(Marco Polo)의 여행(1271~1295)기인 "동방견문록(?)"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요코하마는 쥘 베른(Jules Verne)의 "80일간의 세계일주(1873)"를 통해서 세상에 소개되었다. 광주는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2011)되었다. 이제 광주는 최첨단 미디어 아트(Media Art) 도시로 세계무대에 등장할 것이다.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를 표방한 광주가 창조도시 요코하마, 역사문화도시 취안저우와 함께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분명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201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는 같은 듯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3개 도시가 선정되었다. 다양성이 화두인 21세기에, 세 도시의 교류는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적 역량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빛고을" 광주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3 CTP175

특집기획

민선 6기 문화 정책 '길' 을 묻다

민선 6기에 바라는 문화정책 제언 류재한_ 전남대 교수, 아시아문화학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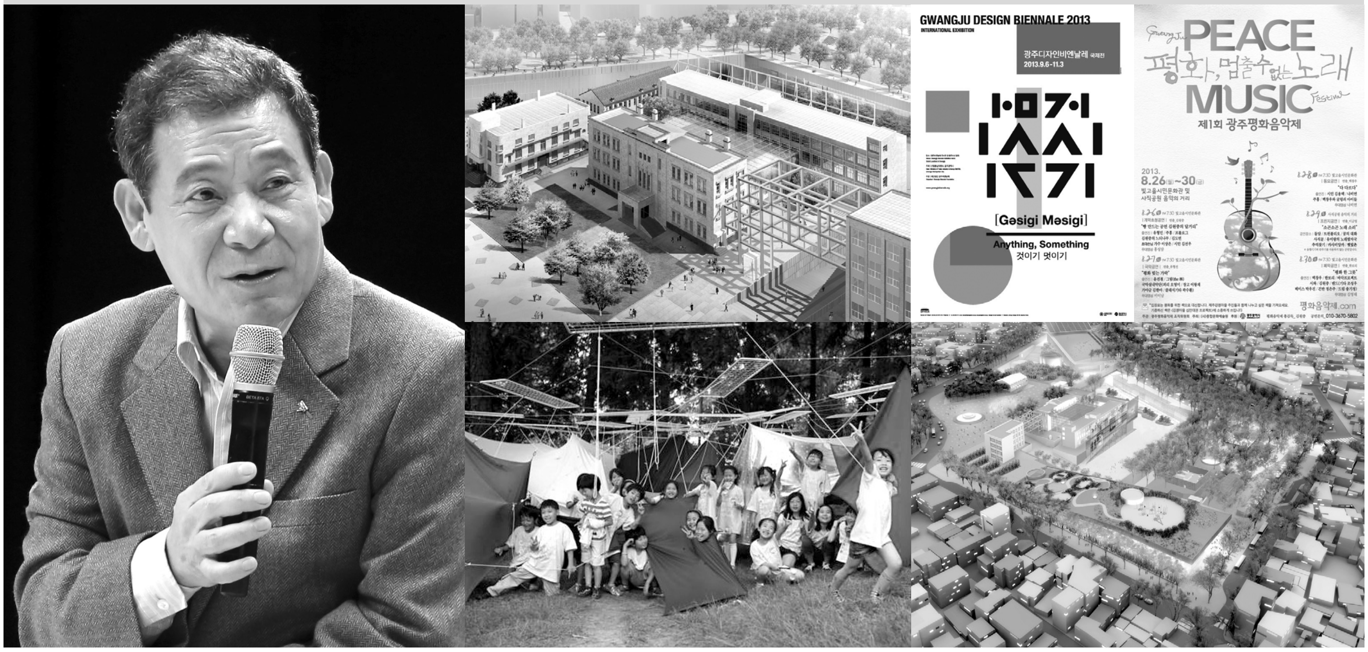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민간 전문가로 남성숙_ 〈광주매일신문〉 주필

시민과 더불어 커나가는 문화예술 도시 광주를 위해 백승현_대동문화재단 사무처장

사람중심의 가치, 문화복지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김기곤_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란 멋진 '멍석' 이경윤_ 아시아문화개발원 사무국장

민선 6기 시대를 맞이한 청년문화발전을 위한 제언 윤현석_ (주)컬쳐네트워크 대표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4 CTP175

민선 6기에 바라는 문화정책 제언

류재한_ 전남대 교수, 아시아문화학회 회장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위기, 디지털 혁명, 환경의 불확실성 속으로 내몰린 세계 속의 도시들은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고 있다. 그리고 도시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의 필수 요소는 바로 문화이다. 도시 고유의 문화자산과 문화 다양성을 도시의 경쟁우위요인으로 만들 수 있는 창의성이 있어야 하며 그 창의성은 창의 문화산업으로 연결되어 도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 발전과 재생의 프로젝트에서 문화와 예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의 결과로 광주광역시의 사령탑이 바뀌게 되었다. 권력의 변화와 함께 시정의 추진과정과 지향점이 다른 만큼 광주시의 문화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비엔날레 20주년과 같은 문화 메가 이벤트들은 민선 6기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대처능력과 그에 따른 위상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해주리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민선 5기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표방하며 '멋들어진 문화공동체'를 시정 5대 목표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제 민선 5기가 '멋들어진 문화공동체'의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 설정했던 다섯 가지 문화예술방향(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 세계적인 축제 육성, 문화예술이 바탕이 되는 문화산업 육성, 창의적인 문화예술도시)은 과거의 시간 속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필자는 민선 5기의 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기 보다는 민선 6기의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해 봄으로써 극복해야 할 광주의 문화적 도전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민선 6기가 해결해야 할 문화정책적 차원의 과제는 무엇일까? 다른 중요한 과제도 많지만 핵심과제로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의 독립성', '광주비엔날레의 변화모색',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주체로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가 바로 그것이다.

광주문화재단의 독립성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광주문화재단의 독립성이다.

문화정책 면에서 민선 6기 문화정책의 성패는 광주문화재단의 독립성 확보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시급한

민선 6기가 해결해야 할 문화정책적 차원의 과제는 무엇일까? 다른 중요한 과제도 많지만 핵심과제로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의 독립성', '광주비엔날레의 변화모색',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주체로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가 바로 그것이다.

문제이다. 광주문화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지켜져야 함에도 민선 5기는 문화재단을 민간조직의 창의성 발현을 위한 독립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하부조직으로 시의 문화정책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전략시켰다는 점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 따라 '팔길이(arm's length)' 만큼의 거리를 두고 문화재단의 운영에는 간섭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화재단은 자율권과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정책운영의 결과일 것이다.

광주문화재단 설립의 목적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더불어 지역 문화를 육성하고 보존하는데 있어서 허브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문화재단을 설립목적에 맞게 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연결하고 다각적인 민간협력을 통해 네트워크화된 문화발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자원의 "연결자"(networker)이자 민간협력의 "대리인"(agent), 그리고 문화예술활동의 "촉진자"(promo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광주문화재단이 재정적으로도 지자체에 완전히 기대는 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해주어 한다. 문화재단의 재정문제는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권 확보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문화재단의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은 민선 6기의 문화정책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재원을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예산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기금 확보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광주비엔날레의 변화모색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광주비엔날레재단은 많은 일을 해왔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광주폴리와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도맡아 치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일을 치룬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고유 업무인 광주비엔날레가 끝나자마자 다음 비엔날레를 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다른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바로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려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지금의 조직으로 두 가지 비엔날레를 치를 수 있는 업무 역량과 조직력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유는 두 비엔날레의 개최시기가 해를 달리하고 있어 재단은 매년 행사를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한 재단이 담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단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6 CTP175

점 역시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광주폴리 사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이 사업이 과연 활기를 잃어가는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양한 '문화적 행위들' 을 유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차라리 광주비엔날레가 위치한 중외공원 내에는 국가관(파빌리온)이 없으므로 광주폴리를 국가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비엔날레 개최기간에는 국가관으로 활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행위를 담아내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편이 훨씬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권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6기의 문화정책 과제 중 중요한 한 축으로 광주비엔날레의 개혁을 꼽은 이유는 광주비엔날레의 성장이 실속 없는 외형적 성장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광주의 문화적 정체성은 잘 담겨있는지, 더 나아가 재단의 조직 역량은 과연 외형적 성장에 비례할 만큼 갖추어져 있는지를 진단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주체로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

민선 6기의 문화정책 중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주체로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성은 민선 6기가 적극적으로 나서 챙겨야 할 몫이다. 전당 개관 이후 광주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획 전시나 기획 공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전당의 콘텐츠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선 6기는 전당을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국가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전당의 콘텐츠가 국가만이 아니라 '광주' 와 함께 채워야 한다는 전제만 있다면,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의 스펙트럼은 좁아지게 된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이 그동안 준비해서 공개한 콘텐츠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제기의 핵심은 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에 대한 논의로 요약된다. '누가 채울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 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지는 것은 기획과 운영의 주체와 전략 부재의 문제를 노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개관만을 의식한 콘텐츠의 개발에만 무게를 두고 차후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는 치밀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기획 프로그램의 준비를 염두에 두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광주가 광주의 몫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채울 것인가' 는 바로 광주문화예술기관의 '협업' 을 통해서이다. 현재 광주 소재 문화예술기관의 협의체가 존재하는 만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의 문제는 사람과 장르를 횡단하는 협업을 창조의 원천으로 삼는 방식을 말한다.

이처럼 문화예술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이 거듭된다면 창조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전당의 콘텐츠는 상생하며 풍요로워지게 되리라고 본다.

더불어 광주가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했던 경험과 전남대학교 한상문화연구단의 축적된 연구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콘텐츠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민족경제공동체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만큼 한민족 문화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가 나서서 흩어져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문화예술단 초청과 협업, 음식한마당과 같은 축제도 고민해볼만 하다는 얘기이다.

민선 6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당이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과 다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예술의 전당은 주변에 문화산업지구가 없어 하나의 문화시설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전당주변에 투자진흥지구라는 문화산업지구가 있어 전

당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선 6기는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출과 더불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당의 '전면개관이냐 부분개관이냐' 하는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개관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전시나 공연으로 안착시키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긴 안목으로 준비하는 여유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전당 안의 핵심인 콘텐츠 외에도 전당 밖의 콘텐츠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볼거리와 관광에도 민선 6기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볼거리와 관광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4대 역점 추진과제 중에서도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변별력에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즉 지역성과 역사성, 발전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현상이 다르게 정착된 7대문화권 사업은 전당의 완공과 개관이 멀지 않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 특히 각 문화권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해 연계성 확보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전당권의 개발과 원도심 재생은 많은 볼거리와 관광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원이니 만큼 각별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역시 민선 6기가 놓쳐서는 안 될 문화정책적 과제이다. 광주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의성 증진과 더불어 지역 이미지 개선 효과, 특히 도시마케팅과 도시의 어메니티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

문화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일 때, 시민의 문화향유는 빛을 발하게 된다. 광주는 문화예술 관련 문화적 자산과 기반산업 등 도시의 잠재력과 경쟁력이 타 도시에 비해 앞선 도시이다. 광주는 이와 같은 대내외 인지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화예술과 도시의 발전을 연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 관련 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와 더불어 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휴먼웨어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문화 거버넌스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문화향수 및 문화 참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은 민선 5기에서 자주 추진되어왔던 단기적인 목표와 일회적인 행사이어서는 안 된다. 사업비 지원의 단순 업무보다는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속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수 및 문화 참여 활동을 유도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만 큰 사업보다 지역 내부에 문화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을 다각도로 실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민선 6기에 바라는 문화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였다. 앞으로 민선 5기의 문화정책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그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출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민선 6기는 문화도시 광주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선 6기는 창의적인 문화를 도시발전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문화도시로서의 광주는 도시의 매력요인으로 문화를 통해 개인의 삶이 꽃피우도록 해줌은 물론 집단의 삶의 개선도 이루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화도시의 선행조건은 문화 거버넌스 즉 문화 협치의 확립,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특히 예술과 문화적인 삶에의 참여)와 주도, 그리고 예술과 문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창의적인 문화정책의 수립일 것이다.

특집기획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민간전문가로

남성숙_ 〈광주매일신문〉 주필

광주 민선 6기에 바라는 문화정책 제언을 4가지로 나눠 해주신 류재한 교수님의 주장(문화재단의 독립성·광주비엔날레의 변화모색·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적극 수행·시민의 문화향유 증대)에 대해 동의한다.

다소 젊잖게 분석한 면이 없지 않아 좀 과격하게 덧붙인다면, 광주문화재단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문화정책 컨트롤타워 수준이 먼저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광주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그 답을 내놓아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광주시민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없는가 여부는 광주시장의 문화정책 전략과 마인드에 달려있다고 본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문화수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광주광역시정의 중심에 문화정책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문화는 밥이다' 며 문화산업 측면에서 접근하면서부터 각종 부실과 부조리를 양산했다. 명운을 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그동안 정치권,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 간에 많은 담론과 갈등을 겪다가 급기야 천문학적인 예산에 밀려 시민의 충분한 합의와 검증 없이 정부 사업이 되어버렸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사업 축소로 위기에 처한 상태다.

그러나 광주시는 그동안 이 위기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 여전히 정부에 기대면서 문화 정책에 있어서 과거의 방식을 고집했다. 지역민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에 기반하여 풀뿌리 문화운동, 사회운동과의 통합적 모색도 없었고 문화를 통한 경제의 성숙 및 지역민의 정서적 재충전의 활로 모색도 부족했다.

민선 6기는 지자체의 문화권력 집중 현실을 시민 참여구조를 통해 민주화함으로써 새로운 문화행정이 창출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 예술계의 질서를 넘어서 새로운 지원 정책을 가시화되고 예총, 민예총, 문화재단의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주체를 형성해 광주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광주 문화의 주역은 누구인가? 국가인가? 시청인가? 예술가인가? 시민인가? 모두가 주역이다. 그러나 무엇이 결국 문화중심도시를 튼튼하게 지탱해줄 버팀목이 될 것인지 짚어보면 광주광역시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문화중심도시건설의 행정 책임자로서 그의 역할은 가장 막중하다. 관객이 없는 음악회, 유통이 없는 미술전시회, 책이 팔리지 않는 서점가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문화수도가 가능한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문화도시의 외형은 돈으로 뚝딱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시민의 내형을 돈으로 만들 수는 없

민선 6기는 지자체의 문화권력 집중 현실을 시민 참여구조를 통해 민주화함으로써 새로운 문화행정이 창출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 예술계의 질서를 넘어서 새로운 지원 정책을 가시화되고 예총, 민예총, 문화재단의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주체를 형성해 광주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다는 점에서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수도 건설을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윤장현 6기 광주시장의 경우 문화마인드가 남다르다.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철학이 내재돼 있다. 그러나 시장 혼자 일을 다 할 수 없는 만큼 시장과 손발이 잘 맞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본다.

광주문화가 아시아문화를 견인할 만한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 틀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컨트롤타워다. 광주시장을 중심으로 문화정책을 총지휘할 감독인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민간 전문가로 공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고위공무원 배치로는 그 해결이 요원하다.

광주시민을 무작위로 뽑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관해, 광주시가 문화수도 건설을 위해 뭘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라.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 지역 문화기획자뿐 아니라 시민이 문화수도 건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전문가다운 전문가의 발탁을 통한 컨트롤타워의 구축이다. 마을을 통한 도전부터 도시단위의 기획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들이 시장, 문화정책실장과 허심탄회 털어놓고 교감할 수 없다면 속빈강정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처럼 관료중심의 문화정책으로 광주시가 매개자로서 문화정책 역량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적 제언,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도 광주에 파고들 수 없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에 문화·관광 컨트롤타워가 없어 문화와 관광 관련 업무가 겉돌고 있다는 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필자는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민간 전문가로 발탁해 광주문화정책의 그림이 가장 상위에서부터 변하지 않는한 그동안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광주시장–문화관광정책실장–문화체육부장관의 삼각 편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광주문화는 아시아를 끌어안을 수 없다.

특집기획

시민과 더불어 커나가는 문화예술 도시 광주를 위해

백승현_ 대동문화재단 사무처장

류재한 교수의「민선 6기에 바라는 문화정책 제언」글에는 1) 광주문화재단의 독립성, 2) 광주비엔날레의 변화 모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주체로서 광주광역시의 역할 확대, 4) 시민의 문화 향유 증대 등의 정책 제안이 담겨 있다. 이 정책 제안에는 민선 5기의 문화정책 비판이 역설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문화 협치의 확립,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 예술과 문화적 삶의 향유라는 민선 6기의 문화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시민 참여와 주도를 통한 창의적이고 변화된 문화정책을 요청하는 것이어서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문화 관광 분야에서 정책으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남 전통 문화예술 진흥원 설립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정신적 가치와 역사 자원들을 현대화해 가치 있는 미래 자산으로 꾸려나가는 데 지역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국가적인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있으면서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집된 미래 구상이 항상 부재해왔던 것이다. 민선 6기 광주광역시의 정책은 바로 우리 호남만의 것, 광주만의 것이 무엇인지 부단히 찾아나가고 이를 정책화시켜 국가적 시책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호남은 예향 미향 의향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호남 사림의 풍류와 시가 전통, 조선 실학, 불교 대중화 운동, 차(茶) 문화 등의 철학이 있고, 예술 분야에서는 판소리, 민요 연희 전통이 살아남아 있다. 고려청자로 대표되는 공예 문화와, 남종화와 서예, 시가문학 예술의 전통도 살아남아 있다.

호남의 음식은 된장, 젓갈로 대표되는 발효 음식의 보고였다. 또 의로운 정신을 보여준 인권 평화의 도시라는 정신사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 고통 속에 피워 올린 저항과 항거의 민족 정신을 대변하는 고장이 광주이다. 이런 전통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광주에 남도의 정체성과 정신 가치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기구나 인프라가 필요하다.

호남 전통 문화예술 진흥원 설립을 제안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다. 남도 문화예술의 연구와 활용이 겸비된 진흥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광주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문화예술 도시, 예술인 은퇴자 도시

새로운 문화예술 도시 광주를 위해 문화 예술가들의 도시, 은퇴자 시티를 구상하자는 것이다. 광주는 미술, 무용, 음악, 연극, 전통문화 관련 종사자들이 많다. 그들이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발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광주시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귀농 귀촌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이나 정책 개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귀농 귀촌이라는 인구 유인책의 접점이 되는 대안은 광주에 예술인촌, 예술인 은퇴자 시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책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개발 논리나 일방적, 자본 투자 개념의 도시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경제력을 가진 은퇴자와 현지 거주자 사이를 광주시가 중간 역할을 하여 실수요자 시민 중심으로 조성해감으로써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은퇴자 시티를 광주의 예술인들로부터 그 구상을 얻고 개발 이익도 예술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 전남의 전통 문화 예술인이 거주하는 예술인촌을 조성하고 남도 음식, 전통 의식·예절, 놀이, 세시풍속, 근대 상점가, 공동체 생활양식 등 한국 문화의 에센스가 생활 속에 살아있는 광주문화 예술촌으로 승화시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대표성을 획득하고 광주의 대표적 관광지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청년 문화가 숨쉬는 다이내믹 광주 건설

청년 문화가 숨 쉬는 '다이내믹 광주'를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영역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성의 직업 세계로 뛰어들 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광주 청년들이 서울로 외국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청년 창업 플랫폼 사업과 기존 도심 공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시정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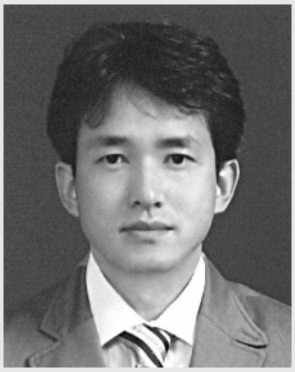
구도심 지역과 함께 부도심 지역의 도시 환경을 잘 활용한 청년 창업 지구 지정과 지원으로 맛, 쇼핑, 오락, 문화예술이 뒤섞여 새로운 문화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역동적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효율성과 투자 대비 생산성을 따지지 않는 '놀면서 즐기며 지내니 일이 생겨나는 역동적 일자리 창출 구조'를 청년 창업 몰 지구 조성과 지원에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문화 현장에서 바라는 것은 몇 가지 코드가 있다. 광주다운 예술 작품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늘 존재하는 것. 시민들이 생산해낸 예술 작품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공감과 지원 속에서 커나가는 것. 그리고 그런 문화 생산과 소비의 구조가 광주라는 도시의 문화적 자부심이 되는 것. 민선 6기 광주광역시장은 그런 풍토와 생산의 대지를 위한 지원과 투자를 씨뿌리 듯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광주광역시의 시민 문화 공동체를 준비하는 지도자로 단련되어야 한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12 CTP175

특집기획

사람중심의 가치, 문화복지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김기곤_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축제, 문화예술행사, 문화산업투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준비, 작은 도서관 확충 등은 민선 5기 광주시 문화정책 항목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문화의 속성상 고비용의 정책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더디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새로 출발한 민선 6기는 '사람중심, 생명도시 광주'를 지향한다. 도시운영에서 각 분야의 정책은 도시의 종합 비전과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설계된다. 민선 6기 역시 '시민의 기본적 권리가 충족되고 도시의 각 부문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행복 실현의 도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문화정책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6기 광주시 문화정책의 핵심과제와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류재한 교수의 글에 잘 담겨 있다. 문화현안을 문화기관의 제자리 찾기, 시민참여 기반 확대, 도시의 창의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진단이라 생각된다. 여기에 문화권 신장을 더하면 좋을 것 같다. 시민의 문화활동에 대한 포괄적 기회를 의미하는 문화권은 도시차원의 문화복지 계획과 실행 프로그램에 의해 신장된다. 앞으로 문화복지가 문화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재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단편적인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복지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동안 문화복지는 사회복지의 주요대상인 경제적 소외계층 지원에 맞추어져 있었다. 문화복지를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화복지는 문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문화적 개입이다. 문화복지는 사람들이 특정한 취향을 형성하고 삶에 대한 미학적 만족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문화생활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의미 있게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문화복지의 역할이다. 사람중심의 가치와 풍부한 문화적 기반이 결합된 도시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복지가 문화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복지 기준선을 만들어야 한다. 기준선은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살피고, 이를 충족시켜 가기 위한 정책의 척도이다. 문화이용권, 문화예술교육 등 국가가 짜놓은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위계화된 행정라인을 통해 모든

도시에서 정책의 목적은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해질 수 있게하는 것이다. 첫째, 문화복지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문화복지 기준선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문화복지의 보편성을 강화해야 한다. ……민선 6기, 명시적으로 내건 사람중심의 가치가 문화복지를 통해 더욱 풍부하게 확대되길 바란다.

지역에서 동일하게 집행되는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문화가 흐르는 생생한 과정을 경시하고 양적 성과에만 급급하는 문화복지 평가시스템도 변화되어야 한다. '문화도시 광주'의 현실 진단과 미래의 문화적 삶에 대한 예측을 통해 광주만의 문화복지 기준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방안은 문화지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근거해 문화복지의 주요 항목을 목록화하고 이를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문화복지의 보편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는 경제적 소외계층에 집중되어 왔다. 이제는 문화접근의 기회를 차상위계층 등으로 넓혀가야 한다. 문화적 욕구는 크지만 여러 가지 제약에 막혀 있었던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근로자, 중소자영업자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문화복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문화복지의 수혜대상이 되는 보편적 문화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생활공간의 문화화 전략은 이러한 보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마을단위의 작은 문화공간은 주민 모두에게 일상의 문화활동뿐만 아니라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에서 정책의 목적은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민선 5기 '행복한 창조도시'나 민선 6기 '사람중심 생명도시'의 공통점은 아마 행복이라는 가치 실현일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좋은 정책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책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이다. 민선 6기, 명시적으로 내건 사람중심의 가치가 문화복지를 통해 더욱 풍부하게 확대되길 바란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14 CTP17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란 멋진 '멍석'

이경윤_ 아시아문화개발원 사무국장

서울 동대문은 그 간 외국인의 필수 관광코스였다. 하지만 대부분 의류 등을 구입한 뒤 스치듯 떠나갔다. 이런 동대문이 변했다. 동대문 일대 대중교통 이용자가 하루 5만8000명이 늘 정도로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시가 동대문 일대 교통 환경을 다시 짤 정도다. 갖가지 볼거리에 머무는 시간도 늘었다. 지난 3월 문을 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얘기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작품인 DDP는 개관 초기, UFO 같은 형상으로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개장 한 달 만에 방문객이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연간 방문객도 5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시설 쇠락한 지역사회 변화

문화시설은 쇠락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1997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집권하면서 발표한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창의 영국(Creative Britain)' 이었다. '뉴캐슬 프로젝트' 는 이 정책의 대표적 사업. 탄광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그 중심지였던 뉴캐슬은 실업과 가난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재생 사업이 가동되고 박물관·미술관·무용 전용관 등이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불과 몇 해 만에 연간 관광객 2000만 명, 실업률 20%에서 4%로 격감, 문화산업 종사자 6만 명, 연 관광수익 40억 파운드(약 8조4000억 원)를 올리는 각광 받는 도시로 새롭게 태어났다. 문화예술로 한 도시가 재생되고, 문화예술로 지역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경우다.

뉴캐슬과 같은 사례는 많다. '도시 경쟁력=국가경쟁력' 으로 인식되면서 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세계 대도시들의 공통된 과제다. 도시의 어제를 기억하는 동시에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자는 뜻에서다. 1993년 프랑스 파리 12구에 등장한 프롬나트 플랑테' (나무로 조성된 산책로)가 대표적이다. 10여m 높이에 설치된 철길과 이를 지탱하던 거대한 아치형 하부구조에 예술 관련 상점과 아틀리에가 들어서면서 당시 사회적 문제이던 고가 철로 밑의 슬럼화 문제를 해결했다.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는 신구의 조화를 이룬 혁신적 항구도시로 꼽힌다. 수자원을 적극 활용한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옛 항구의 창고를 문화시설로 변모시켰다. 쇠퇴일로에 놓였던 영국 철강도시 셰필드도 80년대부터 지역문화정책을 꾸준히 실시해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났다.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꿈꾸는 광주가 이제 도약대에 올랐다. 옛 전남도청 일대에 첫 삽을 뜬 국립아시아문화전

21세기 광주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은 문화다. 문화는 곧 기회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문화전당권 주변부터 문화도시에 걸 맞는 가로(街路) 환경으로 바꾸려는 노력과 시도가 담보 되어야 한다. 여기엔 민 관 시민단체가 따로 없어야 한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사람이다.

당이 2014년 10월 완공, 2015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금 문화전당 주변은 어떤가. 세계적 문화도시와 견줘도 될 만큼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준비된 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화전당 외딴 섬 되어선 안 돼"

문화전당의 콘텐츠 세부 계획안이 처음 발표된 지난해 10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를 위한 열린 세미나' 에 참석한 문화예술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주문한 말은 "문화전당이 도심 속의 외딴 섬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였다. 이는 문화전당 주변의 도심 디자인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반증이었다.

첫 단추는 꿰어졌다. 우선,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위원장 정동채)이 '문화전당 주변의 폐가와 빈 임대공간 등을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고 예술가와 창작자들의 거주공간으로 만드는 도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주시 동구지역을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머무는 문화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다. 지원포럼은 또 문화전당 주변 예술의 거리와 금남로 등을 인권, 환경, 교육 등 특색 있는 길로 만들 것도 제안했다. 정부도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등 노후 주거지역이나 쇠퇴 도심에 주거·상업·문화 복합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당권역 머무는 장소 탈바꿈 필요

1849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됐다. 당시만 해도 먼지만 흩날리는 촌구석으로 "go west"를 외치며 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심지어 태평양 건너 중국에서조차 금으로 상징되는 꿈을 좇아 캘리포니아로 향했다. 이른바 '캘리포니아 드림' 이었다. 160여 년 전, 캘리포니아 드림의 '금광' 이 광주에선 '문화' 로 바뀌었다. 21세기 광주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은 문화다. 문화는 곧 기회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문화전당권 주변부터 문화도시에 걸 맞는 가로(街路) 환경으로 바꾸려는 노력과 시도가 담보 되어야 한다. 여기엔 민 관 시민단체가 따로 없어야 한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사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동구청 등은 물론 시민과 상인, NGO 등도 도시 외관(도시의 이미지, 상징, 경관)을 개선하거나 광주만의 특성을 살린 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ACC(Asian Culture Complex)가 'Accessability, Cooperation, Community(접근성, 협력, 공동체)' 를 갖춘 세계적인 '문화허브' 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 본다. 아시아문화개발원부터 노력하겠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16 CTP175

민선 6기 시대를 맞이한 청년문화발전을 위한 제언

윤현석_ (주)컬쳐네트워크 대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도시가, 지역이 변하고 있다. 정보 진화의 패러다임 속에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1인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 하여 정보의 공유를 넘어, 소통의 방식과 속도는 더욱 빨리 변화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자생적인 발전을 얘기하는데 문화적 가치와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특히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청년들의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져가고 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 등이 청년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과거 선배들의 문화적 활동 등이 운동성을 담보하고 사회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시작 되었다면, 새로이 등장한 청년예술인과 문화기획자의 모습은 자기욕구의 실현 및 사회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1인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방법 등을 실험하고 이를 통해 자생적인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가고 있다.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에 '시민시장' 이 선출 되었다. 그리고 그 '시민시장' 은 지역 청년들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높이고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만들어가는데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도전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지역을 혁신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

앞으로 지역에서의 청년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고, 진지해져 가는 가운데 문화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문화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예술인과 청년문화기획자를 육성하여 그들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역문화발전의 동력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역적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본다

청년예술인과 문화기획자의 창의성이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의 모든 창의적인 것은 모두 시도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만큼 누구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현 되고 구체화 되어야만 비로소 창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노력하는 지역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획 및 예술 활동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기존의 관행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에서 다양한 문화재원을

청년문화예술인이라면 누구라도 도전적인 아이디어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발전기금' 과 같은 커뮤니티 펀드를 조성하여 청년문화예술인의 도전적인 활동과 가치, 철학을 발굴하고 길러내어 더 많은 기회가 지역에서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성하는 방법을 고민해야하는데, 최근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를 포털 사이트에 정보를 고유하여 그 프로젝트가 실행 될수 있도록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되고 있다.이러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사람들과 소통하여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가고, 청년문화예술인이라면 누구라도 도전적인 아이디어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발전기금' 과 같은 커뮤니티 펀드를 조성하여 청년문화예술인의 도전적인 활동과 가치, 철학을 발굴하고 길러내어 더 많은 기회가 지역에서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문화기획자의 다양하고 창의적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좋은 생각과 사람들은 모였을 때 그 힘이 진정으로 발휘한다고 한다. 지역에서 독립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및 활동들이 한데 모이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네트워킹하고 협력적 사고와 행동으로 기획력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거점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지역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인큐베이팅 되고, 이종 활동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융 복합적 기획들이 만들어져가고 이러한 창의적인 모습들이 공간에서 한데 어우러져 문화적인 자양분으로서 숙성되어가고 이러한 에너지가 시민들에게 삶의 영감으로 전해져 갈 때 지역은 외견만 성장하는 문화도시가 아닌 내재적 역량을 발휘하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져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민선 6기에 바라는 청년문화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민선 6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를 동력삼아 지역을 발전 시켜나가야 하며 이를 지역의 매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문화적 영감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는 기존의 모습과는 차별화된 행동 및 사고가 수반이 되었을 때 가능한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지역의 청년문화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의 마련, 그리고 자율적 협업이 가능케 하고 융·복합적 기획들이 이뤄지는 공간의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18 CTP175

움직이는 상상력, 세상을 변화시키다.

– 예술과 IT의 결합,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김정희_ 시인, 재단운영위원장

'모나리자', '묵죽도' 등 명화를 LCD 모니터에 재생시키는 기법으로 고전 명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세계적 명성을 얻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

무한도전과 상상력이 넘치는 그의 작품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천재 화가의 그림이 움직인다. 뿐인가. 명화 속에서 눈이 내리며 헬기에서 떨어지는 글자들은 또 다른 산수화를 그려낸다. 겸재 정선의 수묵화 속 인물이 나귀를 타고 고흐를 만나러 가 시공을 초월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날아다니는 화려한 빛깔의 나비와 이미 잘 알려진 그림속에서도 순식간에 무엇인가 스르르 사라지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체험– 전시장에서 만나는 그의 작품들은 진부함과 익숙함을 시원스레 날리고 상상을 초월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액자에 갇혀 있던 옛 그림들을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그의 기발한 상상력의 출발은 어디였을까?

그것은 조각을 전공한 작가가 한 곳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기존 작품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특별한 욕구를 가진 때문이었다. 대학시절에는 공모전의 상을 휩쓸면서 '천재' 소리 까지 들었지만 '흐르며 살아 움직이는 미술'에 대한 그의 열정적 외도는 주위에서 '미쳤다'는 수근거림도 받았다. 그러나 현대미술의 세계를 접한 그는 꿈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숨어있는 광맥 같은 기회를 잡아내는 일이다.

스티브잡스가 삶의 곳곳에서 새겼다는 '항상 갈망하라'와 '끝없이 배우고 노력하라'는 말처럼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은 자신의 작업들을 위해 그렇게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현대미술은 모든 소재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은사 신현중 교수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처음에는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재료를 뛰어넘는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빛이었다.

작가에게 미디어 아트의 기계적 냉철함이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예술적 감성과 동떨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하지만 따뜻한 감성과 재치가 없으면 절대로 작품을 완성할 수 없다는 답이다.

"항상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고 제 작품을 보며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작가와 관람객이 스스럼없이 질문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일까. 그의 작품 제목은 '해피니스'가 많은 것도 눈에 띈다. 런던 해러즈 백화점 윈도 부스에 설치한 작품도 '해피니스- 한류'다.

8m 길이의 LED 디지털 병풍에는 일월오봉도, 십장생도, 의궤행렬도 등 한국의 전통 고서화 이미지를 움직이는 영상으로 재해석했다. 스위치를 켜면 병풍에서 가야금 소리가 나오고 화조도 에서는 나비가 날아다닌다. 삼성전자의 LED TV 화면을 이용한 것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이 작품은 세필로 그린 그림보다 더 정교하다. 더욱이 아름다운 음악이 접목돼 움직이는 풍경과 함께 감수성을 자극한다. 원본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고수하되 작품 속에서 동서양의 융합을 이루어 원본 이상의 감동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다. 작가에게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창의성의 벽을 어떻게 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뜻하지 않은 장소나 공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지요. 손님을 만나 차를 마신다거나 노는 장소, 심지어 노래방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스마트폰에 바로 메모해 둡니다. 물론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는 일상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얻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작품을 구상하고 실제 작업을 할 때는 처음과는 달리 기술적인 작업은 세분화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1. 미인도와 벨라스케스 기르고 개미이야기
2. 고흐 자화상과 개미이야기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거나 전화를 받는 다거나 하는 등의 일상 업무 외에도 설치, 기술연결, 사후 서비스 등 몇 가지 업무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단명할지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작품의 구상이나 창작 과정이 늘 새로움을 요구하는 만큼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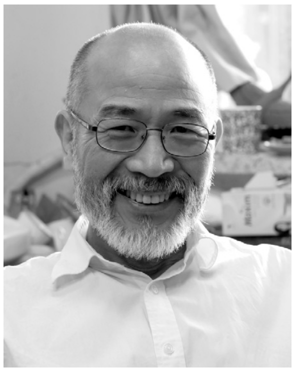
미술계의 '싸이'로도 불린다는 작가 이이남의 방법은 작업실 주변의 양림동을 산책하거나 커피숍에서 평소 가까운 지인들과 나누는 차 한 잔이 전부라고 한다. 주량도 많지 않은 편. 작업시간외에 명예교사로 특강이나 문화예술 체험 현장에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도 늘어났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를 위해 폐선부지를 환경 생태적으로 살려 낸 '푸른 길'에서 문화의 달큰 잔치를 미디어 아트 작업으로 준비하는 중. 또 그의 작업실이 있는 양림동 청아빌라 부근에서 김태군 작가와 함께 '최후의 만찬' 공공 미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다만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고 부수는 작업 보다 있는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디지털영상과 아날로그 감성이 만들어 내는 소통의 기쁨, 기술과 예술의 융합, 그리고 캔버스를 벗어난 자유로운 상상력과 특별한 서사구조의 이야기들- 작가 이이남이 작품으로 표현해내는 수많은 가상과 가능성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뿐 아니라 지금 세계 미술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20 CTP175

몸으로 쓴 미술평론, 장석원의 『소통의 비밀』



변길현_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한국에 미술평론은 직업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4년 현재 직업적인 미술평론가, 즉 아무런 소속도 없이 미술작가나 미술작품에 관한 글을 써주고 받는 원고료로 살아가고 있는 미술평론가는 한국에 단 한사람만 존재한다. 나머지는 교수이거나 큐레이터이거나 한량인 사람들이 쓰는 단편적인 글들이다. 신문사의 신춘문예에서도 미술평론 분야가 사라지고 영화평론으로 대체된 지 오래이다.

광주에도 미술평론가가 있을까? 직업적인 의미로서의 미술평론가는 없지만 미술평론집을 낸 분은 모두 4명이다. 이세길, 조인호, 장석원, 윤진섭.

이세길 선생은 이미 타계하셨고, 조인호 선생은 비엔날레에서 근무중이고, 장석원 선생은 전남대 미대에서, 윤진섭 선생은 호남대 미대에서 미술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돈도 되지 않는 글을 열심히 쓰고 있으니 이들에게 미술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손색은 없겠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전남대 장석원 교수의 『소통의 비밀』(2014, 발해그래픽스)이라는 책이다. 지금 60대 초반인 장석원 교수는 1976년에 『어째서 전위미술인가?』라는 평론집을 내고, 1977년 본인의 결혼식을 전위적인 퍼포먼스로서 치렀다. 퍼포먼스의 마지막은 3분간 이어지는 진짜 키스(남들 앞에서 하기에는 꽤 긴 시간이다)로 마무리되었고, 다음날 중앙 신문들은 이 퍼포먼스를 대서특필하였다. 21세기인 지금도 퍼포먼스 형식으로 자기 결혼식을 치르기가 어려운데 유신독재시기인 1977년에 퍼포먼스 결혼식을 했으니 청년 장석원의 예술적 전위성은 당대 최고였을 것이다. 그는 그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30대 초반에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시각문화월간지인 공간사 편집장이 되었다.

그만큼 전위성과 퍼포먼스는 장교수에게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출발선에 있는 숙명과도 전제들이다. 장교수에게 있어 전위성이란 “미술에 있어서건 삶에 있어서건 통상적 사고방식을 뒤흔드는 반란을 의미한다. 그것은 규정된 가치를 전복시켜왔다. 혁명은 정치적인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그것은 순수한 의미에서는 늘 깨어 있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21 CTP175

으라는 말”(『소통의 비밀』, p.76)과 같고, 퍼포먼스란 “일상, 놀이, 볼거리이면서 동시에 삶이 곧 예술이고 놀이 안에 사유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p.82)이다.

그러므로 그가 30대 초반에 국립전남대 사범대 미술교육과 교수가 된 것은 그에게 행운만은 아니었다. 그는 차라리 80년대 인사동에서 몸을 굴리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결혼식 축사나 용비어천가와 같은 미술평론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미술 평론을 하는 그의 순수함은 예술의 전위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울리지 않았다. 미술계에서의 패거리 문화가 존재했고, 평론가란 미술작가를 장식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원로들이 힘을 쓰는 곳에서 그는 평론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평론가보다는 전시기획자와 작가로서 활동하고 싶어 했다. 작가는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이었고, 전시기획은 사회적으로 발언하는 활동이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실장(2000), 예술감독(2004), 국제아트비젼 아시아패닉 총감독(2009) 등 그는 광주에서 열리는 전시기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의 제자들은 그에게 편하게 교수나 하시지, 왜 사서 고생을 하시냐고 하지만, 그의 본질은 ‘선각자적 전위성’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의 생각이 피 속에 들어있는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국립대 교수노릇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소통의 비밀』은 그런 그의 인생을 담은 미술비평서이다. 교수로서 연구한 논문들, 평론가로서 쓴 작가론들, 비평가로서 쓴 평론들이 오롯이 담겨있다. 부사 ‘오롯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둘째, 고요하고 쓸쓸하게. 그의 비평서는 두 가지 다 해당된다.

첫째는 비평서 자체로서 완전하다는 뜻이다. 비평서는 읽는 재미와 함께 독자에게 지식과 배움을 주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빠져도 실격이다. 전문가도 못 알아들을 단어들과 지식들을 과시하는 글들. 세미나 시간에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엮어서 내는 책들.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 글들을 평론이라고 내놓으면 안 된다. 단언컨대 그런 글들은 읽고 나면 휴지통으로 가야할 쓰레기와 다를 바 없다. 왜 그럴까? 독자와 소통하려는 진심의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 노력은 책상 앞에 앉았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일생을 통해 마음을 쏟아야만 저절로 글쓰기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통의 비밀』에는 그의 일생이 담겨있다. 그것이 읽는 이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그것이 읽는 재미로 이어지는 것이다.

1. 김인경 작품 설치
2. 복면을 쓰고 핸드마이크로 ‘세상을 바꿔라’는 구호를 외치며 불꽃을 내뿜는 에스토니아의 논 그라타 그룹

그것은 물론 비평의 원래 의미에 충실함을 전제로 할 때 이루어진다. 비평이라 함은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에 주례사 같은 평론 말고 본래 의미의 비평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장교수는 본래 의미의 비평을 말한다. 젊은 시절 지역대학의 교수로서 좌절당한 평론의 날갯짓이 꺾이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그의 비평이 고요하고 쓸쓸하다는 것이다. 그가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22 CTP175

3. 2010 광주비엔날레, 최병수 작가의 이한열 열사 영정 작품 4. 이일호 5. 2009년 아시아 패닉전시 오픈 광경

지역미술계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그의 사회적 권력은 아주 작은 게 틀림없다. 그의 전시회를 겸한 출판기념회는 아주 간소했고, 찾아오는 이도 제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나마 그런 출판기념회조차 없었으면 누가 그의 미술비평서를 볼 수 있었을 것인가. 또 그의 비평서를 숙독한 미술전문가가 몇이나 될 것인가. 그의 비평이 광주에 던지는 메아리는 미술계의 권력심층부에는 닿지 않는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의 추락과 근본 문제」(p.20),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정책과 그 허실!」(p.48), 「오프닝 풍경부터 바꿔라!」(p.138), 「비엔날레는 시장의 전유물인가!」(p.142) 등 그가 미술계 권력에 대해 던지는 공식적 비평은 의도적으로 무시되어왔다. 어디서 개짓는 소리처럼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고요하고 쓸쓸해 보이는 것이다. 이쯤에서 그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쓴 소리를 던져보아도 되겠다. 광주지역작가가 개인전 서문만 주례사로 쓰든지, 아니면 서울을 중심으로 평론활동을 하든지 할 것이지, 힘도 없는 분이 왜 혼자 광주미술계 권력심층부에 쓴 소리 하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소통의 비밀』은 광주미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흡수해야 할 단비와도 같다. 예술은 비평과 더불어 발전한다. 듣기 싫다고 비평을 적대시하거나 무시하는 순간 폐쇄성의 주요 특성인 근친상간과 집단따돌림이 시작되고, 퇴보로 이어진다. 예수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통상적 사고방식에 대한 전복'을 꿈꾸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그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의 비평은 자기의 민족을 넘어 타 민족에게도 보편적인 이상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애써 모른 척한 비민주적이고 비예술적인 행태들에 대한 비평, 온전한 의미로서의 비평이 우리를 살리는 전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전망에 대한 담론이 일상화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말이다. 『소통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는 약방문이다.

문화현장

다른 그러나 같은 PEN 문인들

서용좌_ 소설가, 전남대학교 독문과 명예교수, 국제 PEN한국본부 광주광역시위원회 회장

열여섯 해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가도 못살고 헤어지기도 하는 세월인데, 우리는 부디 이혼 생각 말고 끝까지 가봅시다. 갈 데까지 가입시더. 양 도시 문인들의 우정을, 행복을, 무엇보다 문운을……

열여섯 번 째 영·호남문학인교류 한마당 – 어언 대여섯 번 참가하는 행사이지만, 이번엔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며칠 전부터 스멀거리는 것은 기대감이 아니라 아랫입술이었다. 출발 전날부터 흉하게 부풀어 오른 입술은 이 부산 나들이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었으리라.

처음 이 교류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1999년이라는데, 그때 무슨 심정에서 이런 행사를 시작한 것일까?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나 신한국당과 민주당 합당으로 태어난 한나라당의 견제 속에 편치 않는 세월 아니었던가. 어쩌면 금강산 관광의 시작으로 남북문제가 더 절실하게 다가온 그때, 요원한 남북통일에 앞서 가능한 동서화합이 더욱 그리웠을까? 아무튼 최소한의 이해의 숨통을 트는 일을 문학이 문학인이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망이 밑뿌리였을 것이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PEN부산의 회원들과 문인들이 우리를 기다려 줄 것이었다. 6월 28일 토요일 정오가 지나 모인 참가자들을 확인하고 출발 신호를 날렸다. 귀찮을 것을 알고서도 주민등록번호며 주소를 수합하여 여행자보험에도 들었고, 걱정할 일은 없었다. 열성 회원들의 열과 성으로 녹두시루떡도 찰밥도 노랗게 익은 참외도 실렸다. 수육에 머리고기에 결정적으로 알싸한 홍어무침까지 실은 버스는 주암휴게소에 들러 점심을 대충하고 나왔을 참가자들의 기운을 돋우었다. 마침 곡성에서 나오는 소설가 한 분도 함께 합류하여 간식을 즐기고 버스에 오르니 서른다섯 명 예정인원이 꽉 찼다. 늘 그러면서도 외지에 가면 길은 서툴러 해운대 학생수련원을 학생수련관으로 찍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엉뚱한 곳에 도착하여 PEN부산 회원들을 오래 지치게 했다.

늦었지만 서둘러 상견례를 치른다. 밥보다 금강산이 먼저다. 환영사, 답사, 축사, 축사……. 기념품 교환. 무엇보다 부산의 '거리 詩' 축제에 참여했던 PEN광주 회원들의 시화작품을 전달받으면서 문인으로서의 동질성 그 이상의 정을 느꼈다. 부산의 시 축제엔 늘 광주의 시인들을 초청하고 있고, 매년 발행되는 『부산펜문학』과 『국제광주펜』에는 상호 문학 작품들을 싣는다. 영어로 쓰는 영미문학도 하나로 이해하고 강의하는데, 하물며 같은 한글로 쓰는 영남문학과 호남문학이 얼마나 다를 것인가 말이다. 오늘 〈희곡의 이해〉를 강의한 김영관 교수(PEN광주 명예회장)도, 〈김영랑 시인과의 추억〉을 들려 준 PEN부산의 시인 김철 교수도 한 올만큼도 동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24 CTP175

과 서를 나누어 말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올해의 행사는 무엇을 막론하고 편히 즐길 수 없는 마음이다. 너도 나도 아픈 가슴으로 그것을 느낀다. 외람된 말이지만 답사에서 오늘을 사는, 살아야 할 인연을 논했다. 소달구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유순' 그 40리 평방의 바위를 1,000년에 한 번 떨어지는 물방울이 뚫어내는 시간이 '겁'이라는데, 법륜 스님 말씀 가운데, 지구 안의 같은 나라에서 동시에 태어나려면 1,000겁의 인연이, 하루 정도 같은 일을 하려면 2,000겁의 인연이 있는 것이라 하더이다. 그런 우리가 만났으니, 통한의 4월, 달력을 넘겨 찢고 또 찢어도 찢어도 아픈 봄을 두고도, 한숨을 내쉬다가 깜빡 들숨을 들이쉼으로써 살기로 결정해버렸으니 살기로 합시다. 그 비슷한 너스레는 편한 시간들을 갖자는 부탁의 다른 변형이었다.

우리는 함께 식판을 들고 섞이어 앉아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니 사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술이 빠지랴. 술술 넘어가는 술에 술 못하는 모범생들은 분위기를 마신다. 이어지는 멋진 자작시 낭송들, 아름다운 노래도, 다른 장끼자랑도 빠질 수 없다. 전문 음악인을 능가하는 기타리스트를 내놓는 부산, 뒤질세라 전문 성악가를 놀라게 할 가수를 내세우는 광주……. 그렇게 따뜻한 저녁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송정, 밤이 내려앉은 검은 바닷가에선 바다가 없어 늘 바다를 그리는 광주사람도, 바다에 물린 부산사람도 구별이 없었다. 젖은 모래 위에 저녁상에서 남겨온 비닐봉지 속의 안주도, 이름 할 것 없이 섞인, 모래까지 섞여 마시는 술도 달콤하기만 했다. 남자가 부르는 이미자도 명가수의 소프라노도 바리톤도 환영이었다. 기계음에서 해방되어, 파도 소리 반주더러도 '시끄러봐' 라고 우쭐대면서.

날이 밝자 짙은 바다내음의 미역국에 도시락반찬이 울컥 생각나는 계란말이에 아침을 먹고 '공부'를 떠났다. 친히, 만기침람의 의미가 아니라 그저 넘치는 친절함으로 광주 버스에 오른 부산 회장은 아뿔싸 안내원이 된다.

욜로 가입시더, 욜로 욜로.

부산 회장님이 아저씨, 기사님 하다가 기사 선생님까지를 들먹이며 안내해 간 곳은 수많은 멋진 다리들을 지나 감천문화마을과 부산민주공원이었다.

감천문화마을 – 얼마나 대단한 문화가 숨 쉬고 있는 곳일까. 부러움 반 호기심 반 찾아간 곳에는 문화가 아니라 아픔이 있었다. 그곳이 간직한 역사는 아픔이었다. 관광 상품으로 알록달록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베어나는 것은 슬픔이었다.

옥녀봉에서 천마산에 이르는 산자락에 빼곡히 들어선 계단식 집단거주지. 산비탈을 이용하여 절대로 뒷집에 해가 가리지 않도록 지어진 주택들에는 굳이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디오게네스의 일화를 들이댈 필요가 없다. 벌써 한 세기 전 1918년 조철제 선생이 증산사상을 기반으로 시작한 태극도 신자들 수천 명이 고개 주변에 집단촌을 이루었던 것이 시발이라고 하니 특수한 종교심에서 서로의 해님을 배려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살아 있는 마을이 전시장이 되었다는 생각은 마음 한편을 무겁게 한다.

그러나 시작부터 특이한 모습들이 외지인을 반긴다. 전영진 작가가 올려놓은 〈사람 그리고 새〉라는 작품은 추녀 끝에 새들인지 사람들인지 고개를 내밀고 앉아있다. 그래, 사람도 때론 날고 싶어……. 주민들은 개성 있는 색채감각으로 집단장을 했고, 멀리서 보면 색종이로 접었거나 고무지우개를 알록달록 맞춰서 가지런히 세워둔 집에서 산다. 가까이에서 보면 빨래 줄에 널린 빨래들 하며 배시시 살아있는 화분들이 삶을 말해준다. 용두산과 도심이며 항구가 다 내려다보이는 〈하늘머리〉 전망대에 오르니, 아, 따가운 햇살에도 상쾌한 바람이 맞아준다. 〈한지의 집〉에서는 수공예품을 사느라 한 눈을 팔고. 〈평화의 집〉 등의 이름을 가진 골목길 프로젝트를 따라 가노라면 몸을 틀어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누군가는 정말 통과할 수 없을 길이 나온다. 전체가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 때문에 PEN부산 사무국장은 아예 혼자서는 다니지 마라, 끝까지 가보려고 하지마라, 미리 경고를 준다.

이어진 부산민주공원 – 공원 입구 비스듬한 잔디광장에는 '민족통일대장부'와 '민족평화여장부'라는 이름의 장승들이 서있다. 이 장승은 진도군민들이 부산시민의 민주정신을 기리며 만들어 보낸 것이라 하니, 영·호남 교류는 여기에도 있구나……. 흐뭇한 마음으로 〈추모조형물〉을 보러간다. 50미터가 넘는 대형 조형물로, 민주항쟁의 연속성과 현재성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25 CTP175

을 부각하는 상징물이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열사들을 기리며 분향하는 곳이란다. 한참을 더 올라 〈민주횃불〉이 있는 곳, 그곳엔 수많은 반사 재질의 작디작은 조각들을 내부에 넣어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이름 없는 별들을 형상화 해냈다고 한다.

거짓말. 거기엔 가지 못했다. 설명만 들었을 뿐으로, 몇몇은 '분수'를 지키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아는 것이 사람 도리라고 쿡쿡 핑계대면서. 게까지 올라갈 여력이 없는 몇 회원들을 벗 삼아 힘들다고 아우성인 심장을 쉬게 했다. 일행은 한참 만에 내려왔고, 살며시 음과 식이 그리워질 즈음 버스는 밥집으로 향했다.

헤어지는 마당, 건배사 – 초청 측 PEN부산 회장의 건배사에 이어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긴장을 풀자고 우스개를 했다. 열여섯 해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가도 못살고 헤어지기도 하는 세월인데, 우리는 부디 이혼 생각 말고 끝까지 가봅시다. 갈 데까지 가입시더. 양 도시 문인들의 우정을, 행복을, 무엇보다 문운을…… 여러 건배사가 이어지면서 〈초원의 집〉 점심이 무르익어 갔다. 실제로 오리고기가 익고 있었다. 그곳은 텔레비전에 '대통령들이 다녀간 집' 소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녀갔다고 소개되었다고 한다. 몇몇은 깡소주를 노무현식 건배를 하자고 확 비우고 잔을 머리 위로 털기도 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는 아무도 잘 알지 못하면서. 낮술에 취하면 어쩌려고?

어이없는 사족 하나.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어떤 휴게소에서 회원들을 놓쳤다. 휴식 후 5분 정도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섰고, 가벼운 식곤증으로 눈을 감던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깼다. 잠시 후 버스를 따라잡은 검은 차에서 내린 둘은 별 계면쩍음도 없이 버스에 올랐다. 우리는 금의환향하는 월드컵 선수라도 되는 양 박수로 환영을 하면서 갑작스레 하나가 되어 깔깔댔다. 사고는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는 느닷없는 판소리공부를 하게 되었다. 임방울의 〈쑥대머리〉를 기가 막히게, 임방울보다도 더 임방울 같은 목청으로 내놓는 '김싸부' 덕택이었다. 쑥대머리 구신형용 / 적막 옥방으 찬 자리어 /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 보고지고…… 거기까지만. 헤어질 시간이 다 되도록 우리는 배웠다, 불렀다. 쑥대머리 구신형용……. 내년에 우리가 부산 문인들을 초청하는 자리에서 이 구절을 합창하리라는 다짐과 함께.

제16회 영·호남 문학인 한마당 현장

우리가 영·호남 화합에 눈곱만치라도 기여했을까? 의로운 질문은 접어두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아련히 머릿속에서 도돌이표마냥 되풀이되는 가락은 우리가 정녕 남도사람임을 상기시킨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26 CTP175

낡은 서랍 속 스케치

광주여성재단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광주 곳곳에 수많은 여성들의 역사와 이야기가 함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에서는 소녀의 감성을 어머니의 따듯함으로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미래의 희망으로 광주공간을 채운 여성의 온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광주공간에 투영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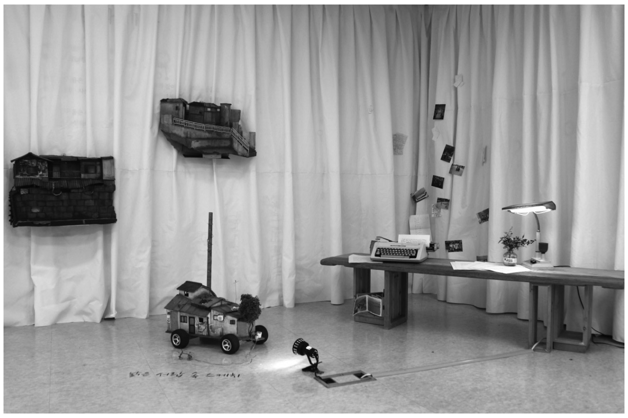
광주여성재단 8층에 위치한 광주여성전시관 Herstory는 2012년 1월 12일에 개관한 지역의 최초 여성전시관이다. 광주여성의 역사 및 삶 등의 주제 전시개최와 광주여성의 감성문화 성평등 전시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광주여성공간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하여 여성역사공간, 사라진공간, 친화공간 등 17개의 스토리를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광주공간에 희미하게 새겨진 여성들의 기억을 꺼내 함께 공유하는 광주여성공간스토리텔링기획展 '낡은 서랍 속 스케치' 지난 3월 7일 오픈하였다.

공간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오롯이 담겨있으며 그 공간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무수히 많은 여성들의 숨결이 살아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광주 공간엔 여성들의 이야기와 삶이 주목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광주여성공간스토리텔링 공모전은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여성들의 이야기와 추억을 낡은 서랍 속에서 꺼내는 역할을 하였다. 수피아홀의 친구들과 이야기, 충현원의 여성역사이야기, 무등산 전망대의 소중한 사랑이야기, 광주여고의 푸른 보리밭, 대인시장속의 아름다운 나무이야기 등 발굴된 스토리를 통해 여성의 온기와 여성의 삶으로 채색된 광주의 따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광주 곳곳에 수많은 여성들의 역사와 이야기가 함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에서는 소녀의 감성을 어머니의 따듯함으로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미래의 희망으로 광주공간을 채운 여성의 온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광주공간에 투영하고자 하였다.

전시기획 및 설치는 지역여성청년작가들로 구성된 '양념쳐스튜디오' 가 진행하였다. 여성공간스토리전시를 다이어리-스케치-사진첩의 서사로 구조화하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27 CTP175



광주공간과 다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작가 장유진은 잊혀졌던 공간을 묵묵히 지키고 이제는 그 소임을 다해 사라진 일상 도구들을 재현하여 희석되어 가는 '기억의 자욱' 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있다. 우리 삶 어느 공간에나 있었던 골목길, 동네슈퍼, 동네 우물가의 펌프 등의 오브제로 제작된 작품에는 여성들의 속삭임, 웃음, 울음, 수다가 묻어있다.

대인시장, 말바우시장, 푸른길공원, 충장서림의 소박한 일러스트는 광주공간을 채운 여성 삶의 모습을 포착하였고, 이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까지 진행함을 시각화하고 있다.

공모전에 참여한 수상자들의 옛사진과 타이프를 통해 기록된 텍스트들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의 나를 조우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하도록 하는 삶의 장치이다. 생성된 희망이 모두의 희망임을 안 순간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기운을 얻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여성으로 나고, 자라고, 내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숱한 이야기가 구석구석 담겨 있는 광주의 공간들. 이제는 사라져 버린 아련한 기억이 되어버린 곳도 있고 여전히 가까이에서 다정한 이야기를 건네는 곳도 있다. 오늘 낡은 서랍 속 이야기를 마주하고 오래된 기억의 스케치를 꺼내어 그날을 회상하고 그 공간을 기억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많은 분들이 전시를 통해 여성의 감성을 함께 공유하고 광주공간에 여성의 이야기가 새록새록 돋아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현재 전시중인 '낡은 서랍 속 스케치' 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69(호남동 23-2) 대원빌딩 8층
전시문의 062-670-0500

문화진단/공연리뷰

리미니 프로토콜 '100% 광주'

김종필_ 극단 연인 대표

리미니 프로토콜 '100%광주'

연출자가 누구고 어느 도시에서 공연되었다는 등의 정보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미 아시아문화전당의 홍보자료 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 평론가들, 그리고 관련자들의 홍보 또는 후기에서 똑같이 언급되었던 것이니까 말이다.

광주(15번째 공연도시) 이전의 14개 도시의 이름이 모두 나온 자료는 결국 찾지 못했지만,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매우 흥미로웠고, 재미있었다.

예술치료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상담, 심리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법(소시오그램, 소시오메트리 등)을 공연에 응용한 것이 특히 이채로웠다. 공연에 참여한 100명의 시민들 또한 흥미롭고, 재미있고,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이고 상당한 자부심 또한 생겼으리라 본다. 이 또한 관객이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반응들이라면 공연 자체로는 정말 훌륭하고 성공적이지 않는가…

그러나 평론가나 이론가, 또는 일반관객이 아닌 '광주의 공연예술가'인 나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면이나 웹페이지에 충분히 언급한 리뷰나 제언 보다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이작품은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의 개관 홍보 프로그램이자 광주 시민 백 명의 참여형 이벤트 공연이었다. 그러나 한국제작진에 의한 공연이 아니었고, 광주시민들이 프롬프터의 화면을 보면서 그저 '참여'하였다(공연예술가로서 나는 이것을 '시스템에 끼워 맞춰진 소품'으로 출연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공연 내용 자체였던 질문 문항들에 광주의 역사적, 정치적,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작품이 반드시 광주의 시민들을 캐스팅해서, 광주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제작할 이유가 있는가? 질문의 선정에 문제는 없는가? 진정 출연한 100인에 '광주'의 대표성이 있는가? 그들의 답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담보되어 있는가? '100% 광주인가?'

최근 들어, 통계나 설문조사 등은 그 질문의도와 내용, 대상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일반 국민들도 알아 버리게 되었다.

너무나 보편적인 질문 문항들을 보면서, 이작품의 공연계획서 혹은 기획서에 씌여 있을 "이 작품이 특별하게 광주의, 아시아예술극장에서 제작(엄밀히 말해 '제작비를 지불')하고 공연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졌다.

이 궁금증은 이 작품이 대한민국의 광역시급, 아니 어느 중소도시에서 제작 공연되었어도 특별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나의 섣부를지도 모르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29 CTP175

'다큐멘터리 연극' 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이 다큐멘터리 고유의 의미와 상통했나? '다큐멘터리' 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역사에 남을 만한 사회적 사건을 허구적 요소없이 그린 기록물. '기행의 기록' 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documentaire에서 나온 말. 특별히 다큐멘터리 작품으로서 강조되는 경우는 기록예술의 방법이 의식적으로 사용되며, 기록을 중심으로 현실을 새로운 각도에서 추적하고 또 그것에 어울리는 새로운 표현이 두드러져, 이야기 중심이 이제까지 예술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이다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공연 내용이 '역사에 남을 만한 사회적 사건' 을 그린 기록인가? '현실을 새로운 각도에서 추적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새로운 표현' 이 두드러졌는가? '이제까지 예술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는가?

아직도 여전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지만 지면의 제한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다.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초대권이나 강매티켓이 난무하는 공연을 제작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예술 토양을 병들게 만들 것인가?

일반 공연단체들 뿐만 아니라 광주의 6개 시립 예술단체들도 '유료관객 객석점유율' 에 단체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시민들의 향유권을 확보하여 양질의 문화예술 작품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티켓값은 R석(50,000원), S석(30,000원), A석(20,000원) 등으로 책정해 놓고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람들 또는 관련자 중심으로 수백장씩 '뿌려지다시피' 한 초대권(모 단체의 포털카페에 '100% 광주' 의 티켓을 선착순으로 200명에게 무료로 배포한다는 글이 아직도 남아 있음)과 강매티켓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값을 주고 티켓을 산 사람은 매표소 앞에서 '바보' 가 된 느낌을 받게 된다면?

최근 광주에서는 일반 시민을 제쳐두고 공공기관과 관련단체 및 관련자들에게 '살포' 되는 초대권이나 강매 때문에 아시아예술극장을 위시한 관단체에서 하는 공연의 티켓을

<100% 광주공연>에 사회복지사를 초대합니다...선착순 200명에 한하여 무료

'100% 광주' 공연은 2014년 4월 19~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19일 100명 20일 100명으로 모집을 합니다.

광주사회복지사협회는<100% 광주>에 대한 연극을 무료로 관람할 수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선 선착순 100명에 신청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많으면

- 사회복지사협회 회원(2014년 연회비 납부자 우대)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직원과 회원(모든직원 포함)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시설 거주자, 프로그램 등록자 등)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우선 순위를 드립니다.

* 8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성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 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소속기관/핸드폰번호/ 전체 참가자수/ 희망 날짜
(예, 홍길순/ 빛고을지역아동센터 센터장/ 010-1234-4321/ 아동과 청소년 15명/ 4월 19일 19시,20일 19시)로 정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j-kasw@hanmail.net

늦어도 4월 15일까지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100% 광주 무료티켓

정상적인 경로와 가격으로 사는 '순수관객' 은 '바보' 취급 받는 사례가 아주 많아졌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는 문화예술계가 모두 말라죽어 '아시아 문화불모지' 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훌륭한 작품을 가져와 관객(시민)의 수준을 높이고 향유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가 되려면 끊임없이 지역예술가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성장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국책 사업에서도 '기술이전' 이 필수 조건이다.

외국의 대단하고 훌륭한 작품을 가져와 보여주기만 하고, 공동제작이나 공동연출, 기술 및 기법 이전 등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도 없이, 제작비를 대주면서, 지역민들에게서 관람료만 뺏어간다면 이것은 침략적 행태이며, 지역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문화예술지원금과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비용을 강탈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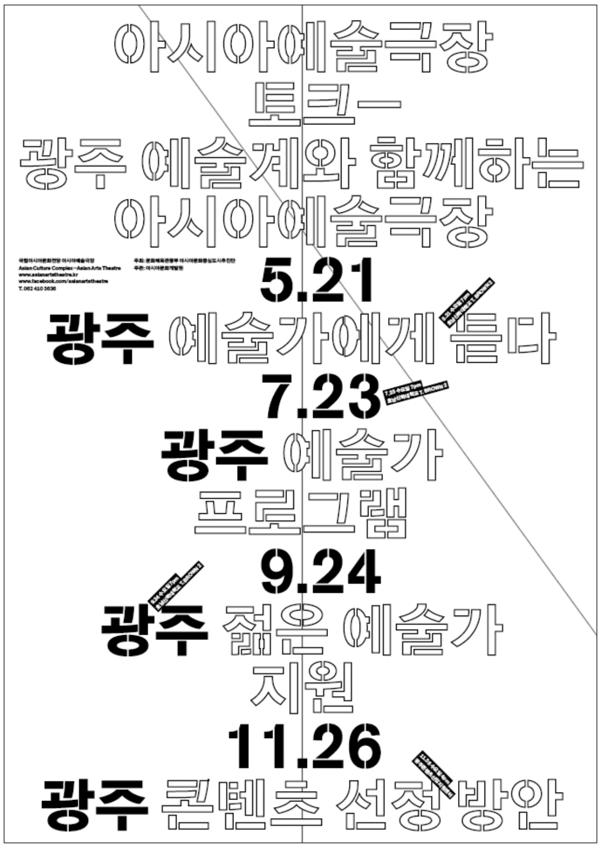
다시 한 번 묻겠다.

'동시대의 아시아 문화예술을 광주와 한국에 소개하고, 교류하고, 공유' 하겠다는 미명으로 광주의 문화예술을 말려죽이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할 것인가?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6 페이지30 CTP175

아시아예술극장과 광주예술

김도일_ 문화평론가, 재단 시민문화위원장



광주의 공연예술계, 다시 말하면 연극, 무용, 국악, 음악, 영상 등 공연예술분야를 대표하는 광주예술인들이 처음 모였다. 〈아시아예술극장 토크〉 "광주예술가에게 듣다: 지역 주요 예술인"이란 프로그램이다.

장르를 초월하여 광주 공연계의 대표적인 예술인들이 모인 것도 처음이지만, 아시아예술극장과 공연예술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것도 처음 일성 싶다.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광주비엔날레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지역예술인과의 융화가 지적 되듯이, 아시아문화전당추진단과 지역 공연예술계와의 소통 또한 큰 문제였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 '광주 예술가 프로그램: 기획자' (7월 23일), '광주 젊은 예술가 지원: 젊은 예술인' (9월 24일), '광주 콘텐츠 선정 방안 논의 및 결정' (11월 26일) 등 아시아예술극장의 비전을 지역 공연예술계와 공유하고 상생의 방안을 모색을 위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 토론회는 감출 수 없는 지역예술계의 소외감이 이구동성으로 표출되었지만, 앞으로는 상생의 방향을 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예술극장의 장소성

현재 아시아예술극장 장소는 광주 5·18의 현장이자 전문적 예술 공간으로 20여년 넘게 광주의 문화를 꽃피웠던 남도예술회관의 옛 자리이다.

오늘날처럼 도시가 다핵화되기 이전에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서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공연과 전시를 한 곳에서 관람할 수 있어서 광주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문화공간이었다. 아시아예술극장이 갖는 장

소적 의미는 지역예술의 공간 발전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장소성을 논할때, '장소(Place)' 는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맥락적 의미의 장소이다. 장소성은 장소가 지니는 의미이며 인간의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예술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넘어서서 공연행위 자체가 평화와 민주 인권을 향해 조직되면서 '광주의 문화 정체성 강화' 와 '아시아의 미적 가치를 실험, 생산하는 창작의 전 방위 거점' 이 되어야한다.

광주예술의 세계화

현재 한국의 예술은 20세기 중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예술의 다문화주의, 탈 물질화, 공공예술 등의 흐름과 함께 다변화하고 있다. 예술전반에 문제 제기된 "재현의 위기"는 단순한 식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예술은 예술이기 이전에 행위 그 자체이며, 삶 그 자체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예술극장측은 이번 토론 결과를 통하여 〈개관 축제〉 시 광주작가 작품을 포함하기로 하고 〈개관 시즌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총 6개의 작품을 예정하고 있다. 그간 지역예술계는 개관준비 작품들 대부분이 외국 작품 중심이라는 점과 광주 공연예술의 전통과 문법에 대한 배제, 그리고 지역문화 정체성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이제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의 세계화가 한국적 가치의 발견으로 이어졌듯이, 광주가 지향하는 아시아적 가치와 공동체를 위해서 광주의 가치와 정서가 내포된 작품을 만들어야하는 과제를 광주예술계는 수행해야 한다. 아시아예술극장은 광주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광주예술인의 주체성

광주사회의 예술계는 과거에 순수와 참여예술, 또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구분했던 양비론적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예술성과 사회성에 대한 경계의 해체와 함께 구분도 상실되었다. 광주의 변화되고 있는 문화적 환경은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예술인 조직의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틀은 광주 예술의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목적과 계획,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정책적 방향 제시 등 예술인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예총과 민예총으로부터 자유로운 제 3지대 문화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지역예술계가 문화 권력이나 이념에 끌려가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예술인 상호간 협력과 아시아예술극장이나 광주문화재단과 동반자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아시아예술극장 건립을 앞두고 광주 예술계의 기대는 크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일방적 주도는 경계되어야 하며, 광주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적 관계가 최대의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예술극장의 성공적 과업 수행을 위해서는 광주 공연예술계와의 동반자 의식이 필요하며, 광주예술계 또한 21세기형 문화 패러다임에 걸 맞는 새로운 예술조직이 필요하다.

문화조명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아시아문화포럼까지

정성구_ (주)도시문화집단 CS 대표

2014년 올해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원년으로써 중국의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 그리고 대한민국의 광주가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은 부산, 대구, 경주, 전주, 부천 등 6개의 문화도시가 경합하였으며 광주를 최종 선정하였다.

문화교류의 의미

문화를 매개로 한 교류는 도시의 대외적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경제 통상을 포함한 제반 교류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국제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각 도시들은 문화교류를 통해 도시민들의 창조적 능력이 발휘된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자기도시의 문화경제를 증진시키며, 문화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문화공동체란 문화적으로 단일한 구성원들만의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 또는 이질성을 기반으로 하여, 그 구성원들을 통합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지역에서 소통하는 지역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개방적인 지역으로, 문화수신지역에서 문화발신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민들은 도시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를 갖게 되며, 소통의 과정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공감'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라는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냄으로써 공동체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다양한 풍습과 인종이 모여 있으며 모든 종교가 있는 아시아는 사람 사는 모습이 가장 다채로운 곳이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특히 한국·중국·일본이 속해있는 동아시아는 어떤 때는 정치적 협력과 문화적 동반자로서, 어느 시기에는 갈등과 반목으로 애증이 점철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 와서는 정치·정치·문화적으로 여러 정황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들 간의 교류는 큰 의미가 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광주

한중일 3국의 문화장관은 2012년 5월, 3국간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의 이해' 등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2014년 올해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원년으로써 중국의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 그리고 대한민국의 광주가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7 페이지34 CTP175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은 부산, 대구, 경주, 전주, 부천 등 6개의 문화도시가 경합하였으며 광주를 최종 선정하였다.

취안저우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가 있는 중국의 손꼽히는 역사문화도시로서, 특히 취안저우의 문화보호 및 문화 계승에서의 성과는 매우 특별하다.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과의 교역이 활발했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요코하마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서양 문물이 전해진 곳으로, 개항 이래 150여 년간 국제적인 항구도시로 발달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창조도시를 지향했으며,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를 포함하여 가로를 무대로 전개하는 다양한 예술활동사업, 창조도시 시책 등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왔다.

광주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아시아와 세계의 문화도시와 공유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한다. 광주가 겪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형성된 인본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켜 비엔날레 등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인류와 함께 나누고 있다.

이 사업은 동아시아 내 상호 이해 및 연대감 형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해당 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살려 문화예술, 창조산업, 관광진흥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실시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 요코하마 스마트일루미네이션 2. 추안저우시 공연 3. 추안저우시 축사

서영무용단 공연

얼쑤 공연

문화포럼의 의미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민간교류이다. 민간교류는 정부 간 외교성과를 훨씬 능가하는 실질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민간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행위자들은 자국 국민이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보다는 상대방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매개체를 구성하는데 전념하기 때문이다.

민간교류 활성화 전략의 초기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대표적인 것이 도시포럼, 문화포럼, 역사포럼, 작가포럼, 청소년포럼, 지역연구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포럼이다. 이러한 포럼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주 만나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논의하면서 교류의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시민들의 모임의 장이 포럼을 통해 다양하게 표출된 욕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적 전략을 세우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구를 만들거나 절차 등을 명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광주의 아시아문화포럼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

아시아문화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연례 국제적 문화학술포럼으로 자리잡았으며, 광주는 이를 통해 아시아 문화도시들과의 교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 광주가 주체가 되어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50여개국 100여명의 세계적 석학들이 포럼에 참여하였다.

아시아문화포럼은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여 국가적 차원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특히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분야의 '다보스 포럼' 과 같은 국제적인 포럼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본부를 둔 이 포럼은 문화를 통한 정상회의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문화에 대한 담론과 아젠다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논의정리

동아시아문화도시는 한중일이 공통으로 만든 문화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같이 공부하고 합작하는 기회로서 상호 배움의 자세로 각 도시를 방문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브랜드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면 광주의 문화와 취안저우의 문화, 요코하마의 문화가 함께 빛날 수 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원년의 취안저우, 요코하마, 광주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동아시아의 각 국가 간에 문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하여 동아시아의 세계적 문화위상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코끼리공화국’은 어떤 곳일까?

박지민_ 코끼리공화국 대표

거기에선 무슨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청년네트워킹플랫폼 ‘코끼리공화국’에 화끈한 광주 청년들이 모였다. 단순한 작업 공간 공유가 아닌 모이고 확장하고 터뜨리기 위한 시끄럽고 신나는 일을 꾸미는 이들.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코끼리공화국’은 여권 없이도 출입 가능한 열린 공화국이다.

코끼리공화국을 세우다

2013년 대학생 협동조합 모의체험 캠프인 ‘co-design camp’를 기획이 우리가 내딛은 첫 걸음이었다. ‘co-design camp’는 놀고, 먹고, 자고, 입고, 일하는 것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을 협동조합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였다. 전국에서 모인 청년 80여 명이 날을 새며,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그것을 협동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는 재미난 캠프였다. 만드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도 즐거웠다. 이것을 계기로 겨울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법인 간의 협업에 대한 캠프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사람들과 함께하니 즐거웠다. 사람이 늘어날수록 설레고 새로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오래, 더 즐겁게 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결국 지난해 협동을 뜻하는 ‘cooperative’의 ‘co’와 ‘서로 함께’를 뜻하는 ‘끼리’를 합쳐 ‘코끼리’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뒤이어 비상식적인 생각을 상식으로 바꾸려는 ‘언리즈너블 아이디어 콘테스트’와 ‘크라우드 펀딩과 임팩트 비즈니스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등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코끼리쇼’를 개최하였다. 콘테스트참가자들의 비상식적인 생각들은 정말 열정적인 쇼를 만들어냈다. 2013년은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지나갔다. 해는 지났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래서 2013년 열심히 활동한 광주청년들을 찾아 ‘2014 셀프 어워드’를 만들었다. 지난 활동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시상식인 셈이다. ‘쓴맛 보고 받은 상’, ‘될 대로 되라 상’, ‘뭣 좀 하려다가 받은 상’, ‘알게 모르게 대상’ 총 네 개의 부문에서 청년 스스로가 자신을 추천하거나 주변의 인물을 추천했다. 뜻을 알면 더 값지고 가슴이 찡해 눈물없이 웃을 수 없는 상들이었다. 유명인사가 시상하지 않아도 좋았다. 내가 나에게 시상을 했던 그야말로 ‘셀프 어워드’는 광주청년들을 다독였고 앞으로 함께 나아갈 동지들을 찾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2014년 2월, 우리는 광주 남구에 ‘코끼리공화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도전’을 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나라

‘도전’은 청년의 특권이고 혜택이다. 잡다한 책과 특강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부추긴다. 그러나 청년의 실제 삶인 학교와 가족, 사회는 도전에 박수를 보내지만은 않는다.

우리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도전’은 어렵다.

청년창업에 도전했던 우리는 그 어려움을 오롯이 견뎌야 했고 견디고 있다. 창업의 길은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들기에는 너무나 험난하기에 혼자서는 더욱 어렵다.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넘어서 깨달았다. 그래서 ‘같이’의 가치에 집중했다. 사람들과 같이 어떠한 것을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청년창업의 길을 걸으면서 매일같이 느꼈던 갈증은 도전에 대한 안정망이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땅이 필요했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7 페이지37 CTP175

다. 뜻이 같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 어렵다는 '도전' 이 허용된 청년이기에 사회에 도전했다. 필요하다면 만들어야한다. 대한민국에서 어렵다면, 우리가 우리들만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내자는 의지를 한데 모은 것이 코끼리공화국이 되었다.

'코끼리공화국' 이 열렸습니다.

광주에 청년창업가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방법을 몰라 지치고 갈 곳이 없어 힘 빠진, 외로운 청년창업가들은 어디에 가야할까? 청년창업가들의 '어디갈까?' 라는 물음에 거침없이 '코끼리공화국' 이라고 답할 것이다. 부담 없이 고민을 내려놓고 너나 할 것 없이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협업하게 되는 곳, 코끼리공화국은 그런 곳이다.

'코끼리공화국' 에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제적 경험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공유된다. 때로는 지금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띔해줄 내 또래의 청년들이, 목적지만 알려주는 멘토링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눈치보지 않고 사업아이템을 논의하고, 쉽게 서로의 능력을 결합하면서 실패의 가능성 또한 차차 줄여나갈 수 있다. 누구든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것을 프로토타입으로 실현시킬수 있는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 클럽' 도 운영한다. '코끼리공화국' 한쪽 방은 3D프린터를 비롯한 도색도구, 레이저커팅기 등 각종 제작기기들이 놓여있는데, 여기서 자신만의 제품을 구상하고 직접 만들어 가져갈 수 있는 원스톱프로세스가 이뤄진다.

'코끼리공화국' 의 넓은 홀은 청년창업가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곳에 가장 먼저 청년창업가들이 모일 수 있는 Shared Office를 마련했다. 앉는 순간 그 곳이 그들의 사무공간이 된다. 100여 평이 넘는 사무실이 다 내 것인 기분을 누릴 수 있는 건 덤이다. 한쪽 벽은 창업 전문 서적을 쌓아 자유롭게 영감을 얻는 공간이다. 누구나 책을 기부할 수 있고 또 대여할 수 있다. '코끼리공화국' 은 나눔을 통해 얻는 공간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은 꽤 넓어서 광장느낌이 물씬 나는 세미나실과 독립된 회의실도 따로 있다. 간단한 회의부터 파티까지 어떤 일이 진행될지 모른다. 신선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작은 카페와 레스토랑 못지않은 오픈키친, 떡하니 자리 잡은 포켓테이블은 작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월 10만원으로 멤버십을 가입하면 누구든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다. 거기다 코끼리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상이 현실로 바뀌는 곳, 누구든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안의 또 다른 나라, '코끼리공화국'

어서오세요. '코끼리공화국' 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7 페이지38 CTP175

문화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할 보편적인 가치이다

염건이_ (사)광주장애인재활협회 재활지원센터 실장

장애인들의 문화향유는 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지금껏 장애인의 문화향유는 장애인복지의 틀 속에서 물질적 지원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수용능력에서 나옵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내일을 여는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사회의 성장 동력일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한 2013년 와글와글 em-ABLE 극놀이학교 'You are special' 7번째 이야기 공연 모습

문화는 인류의 물질 생산활동에서 발생하여 확대된 제반 정신활동 영역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은 모두의 공통어입니다. 또한, 문화는 돈이나 양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당연한 자양분이자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오래전부터 문화는 우리곁에 존재하였고 과거부터 교육과 산업에 적용되어 모두가 누려야하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에게는 문화는 특별하고 선별적으로 누려야할 '복지' 로 잘못 알려져 있어 그들은 여전히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문화향유는 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지금껏 장애인의 문화향유는 장애인복지의 틀 속에서 물질적 지원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은 그들에게 반복적인 제자리걸음을 종용할 뿐이며 이러한 인식이 퍼져있는 사회라면 복지예산이 투입되어도 여전히 장애인의 삶과 비장애인의 삶이 함께 발전하지 못하는 커다란 함정 속에 빠져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회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수용능력에서 나옵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내일을 여는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사회의 성장 동력일 것입니다.

장애인이 문화를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각종 문화예술정책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의 장애와 이동권, 접근권이 장애로 인해 번번히 소외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공되고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7 페이지39 CTP175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은 그 사회의 장애수준을 고스란이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이런 인식들은 유무형의 사회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배려가 없는 문화시설들은 이용할 수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문화시설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야 합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문화시설에는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서 스마트한 감상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가 문화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제공방식의 전환과 함께 문화공연인프라 보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 입니다. 직접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 다체로운 공연을 펼친다던지 지역사회주민도 모두 참여하는 특정 공연프로램의 기획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문화나누미', '함께해요 나눔예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사랑티켓', '문학나눔' 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이 문화향유자가 아닌 문화프로그램의 제공자로써 역할을 기대하며 장애인들의 문화적 자립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술을 통한 자립실험은 창조적인 장애인의 일자리와도 연계될 것이며 한 개인이 예술의 생산자로써 이 세상에 바로 선다면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걷는 속도가 같아지고 사회의 차별과 공간의 차별이 줄어드는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 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결국 몇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함께 제시되어야 해결 될 것입니다.

먼저, 행정적인 문화기반을 전담 지원하는 관공서와 공무원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과와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진흥과가 문화업무를 분할 담당하며 다양한 접근통로가 보장되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행정의 전담부서체제로 인해 행정의 칸막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화정책들이 시민들의 개인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모두가 누리는 가치로 접근해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지역내 문화기반시설을 대관쿼터제와 같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설들은 공연의 질과 수준만으로 대관결정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 예술단체의 소소한 역량부족으로 실력을 선보일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기회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불평등 해소와 함께 장애인이 공연참여자로서의 환경조성을 위해 무장애 공연장 건립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공연모습

문화는 예술로 대표되는 작은문화에서 넓게는 우리 삶의 총화로서의 커다란 문화까지 다양한 스팩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장애인의 삶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사회발전의 유일한 통로가 될 것 입니다.

수많은 장애인 문화활동가들은 문화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는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믿음은 공상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면 명백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장애인이 누리는 문화수준은 우리사회의 크고 중한 이정표가 될 것 입니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7 페이지40 CTP175

광주정신을 담은 광주의 문화사회적경제

류동훈_ 사회적기업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1

2

3

1. 고흥 별나로마을– 갯벌체험, 농촌체험 행사
2. 광주교도소 위문공연
3.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르며 어르신 효도공연– 강진마량

금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한 문화컨텐츠 활성화, 시민문화공동체 육성 등 사회적경제와 문화산업 관련한 내용이 비중 있게 들어 있었다.

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영역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앞둔 문화산업을 지역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결합이 된 문화사회적경제 영역은 광주의 미래전략산업으로 고민하며 시민의 행복과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투자가치가 크다 하겠다. 초창기 광주에서 사회적기업 공모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아시아문화도시의 전망을 보고 많은 문화사회적기업들이 생겨났었다. 하지만, 전당 건설 과정의 지역사회 갈등으로 인해 전당 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문화사회적기업들이 고전을 많이 하여 안타깝다.

문화·예술·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노리단"이 있다. 폐자원을 활용한 공연컨텐츠로 포스코 회사의 광고 모델로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으며 성공하였고, 인기그룹 클론의 멤버로 활동하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강원래 씨가 주도하여 이끌고 있는 "꿍따리 유랑단"도 장애인 문화컨텐츠 공연으로 주목을 받으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사회적기업은 모두 차별화된 독특한 문화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향하는 바가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의 문화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광주 정신을 대중성 있게 담아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광주 정신은 5·18의 대동문화정신이며, 미래 후손들을 생각한 역사적인 선택으로 죽음을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7 페이지41 CTP175

앞에 두고서도 가치있는 선택을 한 시민들, 참혹한 상황에서도 주먹밥과 헌혈을 나누며 서로 돕고 살았던 절대공동체의 정신이 바로 광주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속에 승화 되어 생활의 실천으로 녹아들어가는 문화컨텐츠 창조가 필요하다. 단순히 저항을 표현하는 문화컨텐츠가 아닌 5·18의 정신을 미래지향적 가치로 재창조하여 시민들의 삶의 행복과 의지의 표현으로 녹여내는 것이다. 멀리에서 소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광주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서 소재를 찾았으면 한다.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산악회를 이끌고 있는 CEO의 이야기, 아시아 오지에 생명수 우물을 파주는 봉사클럽의 이야기, 암으로 투병하신 어머니를 위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이야기, 마을회관에서 화투를 치는 노인들에게 콩나물을 기르고 판매하게 하여 노인과 지역민을 하나로 묶은 어느 NGO의 이야기 등 소재들을 노래, 영화, 뮤지컬, 뮤직비디오 등 아름다운 문화컨텐츠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문화도시 광주에서 만들어내는 문화컨텐츠는 상업적 이익과 폭력적, 자극적인 내용과 기교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담아내면서 대중성을 추구하는 상품성을 브랜드화 시켜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컨텐츠 창조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문화창조와 향유 활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건설회사 CEO들이 만든 그룹사운드,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사운드,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밴드팀 등 의미있는 시도들이 광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소한 삶의 재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획과 시도가 있으면 좋겠다.

4

5

6

4. 사회적기업한마당공연
5. 충장축제- 야호 충장로공연
6. 화순 도장마을 농촌체험행사

또한,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문화컨텐츠들이 생겨나 지역의 관광산업과 브랜드가치 향상이 동시에 진행되길 바란다. 〈박수건달〉이라는 영화가 광주시에서 추진한 아시아문화투자조합의 예산으로 만들어져서 전국적인 흥행을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광주 돈으로 만든 영화가 왜 부산을 배경으로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무조건 광주만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도 폐쇄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광주·전남을 배경으로 한 문화컨텐츠가 많이 생겨나 지역발전과 전략적으로 연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광주영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광주로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풍부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을 융합하여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남의 영상위원회와도 협력할 사안이다. 단순히 행정구역의 구분만으로 컨텐츠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이 통합하여 보다 경쟁력있는 풍부한 컨텐츠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시·도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도는 전국채널을 가진 방송국이 광주로 이전되거나 설립되어야 대중성을 가지고 전국에 전파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지혜와 전략을 지역사회가 에너지를 모았으면 한다. 또한, 문화사회적경제를 위한 특화된 경영컨설팅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각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시너지효과를 내는 전략도 고민하여야 한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7 페이지42 CTP17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민인철_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초 한창 공사중인 전당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전당 투어를 하면서 문화전당의 규모에 놀람과 동시에 이 넓은 공간에 어떤 콘텐츠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스러운 감정이 내 머릿속을 스쳐갔다.

주지하다시피 2014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혁신도시 이전,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으로 지역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광주를 문화경제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한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2015년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구성을 위한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관 이후 전당 운영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콘텐츠 제작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당 개관 이후 5개원을 중심으로 콘텐츠 『창』 제작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콘텐츠산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역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목적으로 문화창조원에 창제작센터가 설치될 계획임에 따라 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문화전당 콘텐츠는 개관과 개관 이후로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개관 이후를 대비한 전당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역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당과 지역콘텐츠산업간 실제적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전당 개관 이후 콘텐츠 제작에 지역콘텐츠 업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전당은 5개원을 중심으로 문화자원 아카이브 및 연구·교육(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예술콘텐츠 『창』 제작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7 페이지43 CTP175

(문화창조원), 공연(아시아예술극장), 교류(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 콘텐츠 생산(어린이문화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2015년 전당 개관을 위해 공연·전시 콘텐츠 제작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전당 개관 이후에는 제작 기능별 팀별 특화 콘텐츠 개발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지역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문화창조원에 창제작센터를 두어 지역특화형 문화예술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창제작센터는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전시·공연 등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전당 내 콘텐츠 강화에 중점을 두며, 개관 이후 랩을 중심으로 창의적 콘텐츠 개발 및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강화에 치중할 계획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지역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전당을 중심으로한 지역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혁신도시 이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 그리고 광주CGI센터 중심 디지털콘텐츠산업클러스터간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문화전당 개관 이후 전당과 지역콘텐츠산업간 연계 가능한 지역 문화인프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학, 지원기관, 연구기관 및 전당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협업 가능한 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지역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에 중견기업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하며, 투자진흥지구 입주업체간 정보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지역문화관련기관 및 학교와 연계한 인력자원종합정보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업체의 피부에 와닿는 투자기준 마련 등 법 개정도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내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문화기술연구소가 광주지역에 특화된 기술 연구를 통해 지역 특화 장르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 5개원 운영 선순환을 위한 톱니바퀴 역할을 할 수 있게 CT연구소가 향후 정출연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셋째, 혁신도시 이전 관련 콘텐츠기관 등과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콘텐츠기업의 콘텐츠 제작지원, 콘텐츠 해외진출지원, 문화기술 개발 및 상용화, 창의인재 양성 및 산업기반 조성 등의 콘텐츠진흥원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지역 관련 기관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공간 공동 사용 및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진흥원과 지역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광주CGI센터 중심 디지털콘텐츠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과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CGI센터는 콘텐츠 제작의 후반작업 전담 시설이므로 콘텐츠 제작의 가치사슬 형성을 위해 사전기획(Pre-production), 제작과정(Main)을 담당할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 디지털콘텐츠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문화전당, 혁신도시 이전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산업 중 관련사업 등과 연계한 콘텐츠 사업화 및 융복합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역내 기술개발 연구기관 등과 협력 체계 구축도 이루어져야 한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7 페이지44 CTP175

[재단소식]

• 사업

2014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밋밋들 연극놀이터〉 시작되다

지난 3월부터 남구 방림2동 어울림공부방에서 시작된 〈2014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 밋밋들 연극놀이터〉가 반환점을 돌아 행진중이다. 올해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극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배운 솜씨를 8월 중에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돌며 공연을 선보인다. 향후 '(가칭)밋밋들 어린이극단' 으로 마을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육성,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9일에는 온 동네가 시끌벅쩍하는 〈밋밋들 마을축제〉를 위해 자치위원회, 방림초등학교, 새마을회, 방림2동사무소 등과 함께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방림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2011년부터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을 소재로 방림2동 아이들이 내 이웃의 우편함, 탈놀이, 마당극, 인형극, 미디어영상 등을 제작하는 프로그램과 마을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밋밋들 마을축제〉로 진행되었다.

재단 임원 상견례 및 친목교류, 임원 워크숍 열려

재단 임원 상견례 및 친목 교류 모임이 지역문화진흥회 주관으로 지난 4월 26일(토)과 7월 19일(토)에 20여명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4월 모임은 올해 3월로 임원 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상견례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성지역 일대에서 열렸으며, 7월 모임은 상반기 사업 보고 및 하반기 계획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혁신도시와 국립나주박물관 등 나주지역 일대에서 진행됐다. 우리 재단 백수인 이사장은 "재단 임원 개편이 마무리 된 만큼 심기일전하여 지역과 재단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4월 모임에서는 나노바이연구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재단 이재의 이사가 재단 임원들을 초청하여 전남의 생물산업의 현황 및 연구센터의 비전과 전망에 대한 소개를 해줘 더욱 뜻 깊은 만남이 되었다.

제4기 역사문화시민대학 성료

재단이 주최한 제4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이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4회에 걸친 강좌와 신안 증도 탐방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라도 여행문화의 흔적을 찾아서' 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는 매회마다 80여명의 수강자들이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을 가득 매워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내용과 재미를 동시에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역사문화시민대학은 •1강, 신정일 (사)우리땅걷기 대표의 '한국인의 걷기 본능–여행의 과거,현재,미래 •2강, 이종범 조선대 교수의 '여행과 인문학' •3강, 박원식 월간 사람과 산 편집위원의 '유산기를 통해 본 옛 선인들의 감성 여행 •4강,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의 '키워드로 풀어가는 전라도 여행' •신안 증도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제11회 학술심포지엄 성황리에 마쳐

지난 6월 17일, 재단 주최로 '광주읍성의 역사문화자원화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덕진 교수(광주교육대,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장)는 '광주읍성의 구조와 절양루의 복원 가능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도심 구조를 감안하면 읍성 복원은 매우 힘들지만 광주의 유구한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대안으로 사이버 광주읍성 구축, 광주읍성 코너 신설, 절양루 복원을 제안"했다.

• 조직

제28차 지역문화진흥회 이사회 열려

제28차 진흥이사회가 지난 4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강동완 진흥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회칙에 의거하여 4월 26일 토요일에 진행될 재단 전체임원 상견례 및 식사모임 추진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기타 회원사업으로 문화번개팅과 지역문화산악회 운영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7월 중 진행할 문화번개팅 모임으로 나주혁신도시 및 나주국립박물관 투어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제38차 운영위원회 열려

제38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수) 오후 6시 30분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김정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6·4 지방선거, 문화전당권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포럼을 개최키로 하고 실행은 정책위원회와 사무처에 위임키로 하였다. 한편 재단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전망을 위한 워크숍은 주요 참여 대상자가 임원임을 감안하여 7월 중 개최키로 한 문화번개팅과 형식과 내용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고 임원회의에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을 위임하였다.

정책위, 시민문화위원회 연석회의

민선 6기 문화정책 제언을 위한 재단 정책위, 시민위원회 연석회의가 지난 6. 18(수)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지역의 시민문화단체와 민선 6기 인수위 문화관광체육분과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시민문화단체가 제안할 정책의 조율 및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열린 모임으로 민선 6기 문화정책은 총 다섯가지로 정리하여 제안키로 하였다. 한편 재단 임원 워크숍은 오는 7월 19일(토)에 나주 혁신도시와 국립박물관 탐방을 병행하여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 워크숍을 열기로 하였다.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7 페이지46 CTP175

[회원소식]

(사)생명존중 지구촌 연대 출범
회장 강동완 조선대 교수
"생명 존중·글로벌 건강메세나 광주 만들 것"

최근 광주 동구 동명동에 (사)생명존중 지구촌연대의 깃발을 꽂은 강동완 상임대표는 "글로벌 100만 친구를 위한 헬스케어센터 프로젝트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조선대 치과병원장과 치과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강 대표가 지구촌 연대의 밑그림을 그린 지는 20년이 다됐다. 강 교수가 구상한 생명존중 지구촌연대는 •지구촌 봉사단 •지구촌 시민 메세나회 •지구촌 연구단 등 크게 3가지 테마를 갖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구촌 봉사단의 경우 지난해 12월 광주시 동구 운림동에 토요 상설 의료봉사센터를 개설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선대 치과대학 교수진과 대학원생을 비롯해 치과병원 의사진, 그리고 서영대 치위생과 학생들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 대표는 "상설 의료봉사, 지구촌 의료봉사 그리고 지구촌 건강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센터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시민 메세나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최무진 진흥이사,
"사람 살리는 기업 자부심에 최선 다할 것"

"생명을 살리는 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될수록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는 셈이어서 일석이조의 업종이죠." 최무진 대표는 지난 1999년 광주에서 의료용품 전문 유통업을 시작하며 수년간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 이후 2005년 순수 국내기술로 응급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나눔테크를 창업했다. 최 대표는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운영하면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영업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에 도전하게 됐다"며 "골밀도 진단과 성장판 측정 기술에 이어 자동제세동기의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확대를 통해 해외 수출을 꾀할 것"이라며 "21세기 화두이자 기업의 덕목인 나눔을 실천하고 보건의료문화를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겠다"고 표명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오성완 운영위원,
'in 광주 THEATER 연바람' 개관

전문문화예술공간 'in 광주 THEATER 연바람(이하 연바람)'이 오는 4월 25일 개관식을 갖는다.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이날 오후 6시 연바람 소극장에서 극장 개관식과 더불어 길놀이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극단 골목길과, 창극 프로젝트 소리치다, 극단 한울림, 청년문화공간 부드러운 직선, 트리오, 베이스 바리톤 이호민,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의 포엠콘서트, 부토 예술가 서승아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연극 '멕베스'와 '안티고네' 등 극단 푸른연극마을의 공연도 진행된다. 푸른연극마을 이당금 대표는 "새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로 희생자가 늘어가면서 개관식을 미룰까도 고민했지만,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굿판을 벌이는 심정으로 공연을 펼쳐 나가겠다"며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무등일보〉 발췌

진시영 운영위원, '인간의 빛 초대전' 열려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1971~)의 개인전이 7월 3일(목)부터 8월 2일(토)까지 갤러리 D(동구 중앙로 소재, 관장 강경자)에서 열린다. 디지털 기술에 공존하는 인간성을 감각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감성으로 시각화하는 진시영 작가의 이번 전시주제는 '인간의 빛'이다.

갤러리 D의 초대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대표 작업인 'Wave'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된 'Flow' 시리즈로 구성되며 2013년 푸조와의 콜라보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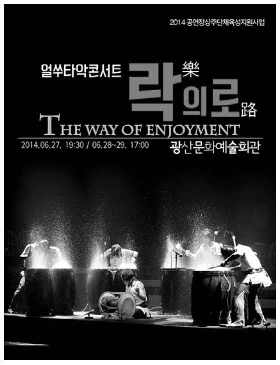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7 페이지47 CTP175

션을 통해 제작된 아트카 'PEUGEOT 208'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정헌기 운영위원, '양림의 소리를 듣다 2' 열어

문화예술전문단체 '공연 순수(대표 정헌기)'는 지난 6월 27일(금) 저녁 7시 30분 광주시 남구 양림동 기독간호대학교 내 오웬기념각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두 번째 시즌의 첫 공연으로 '오웬기념각 100주년 기념 100년의 기억속으로'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해롤드 로이드의 대표작 '신입생(The Freshman·1924년작·70분)'이 상영되었으며, 드러머 김훈과 건반주자 김다인으로 구성된 무성영화 전문 밴드 S.O.M (sound of movie·영화의 소리)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화의 극적 흐름에 맞춰 직접 구성한 라이브 연주를 들려주며, 문화 코디네이터 이정현 씨가 내레이션과 진행을 맡았다.
정헌기 대표는 지난해 양림동 근대역사문화유적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6회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역사적 장소와 인물에 얽힌 스토리를 소개하는 등 문화공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며 주목받고 있다.

김양균 운영위원, 얼쑤타악콘서트 '樂으路' 개최



문화예술전문단체 '전통문화연구회 얼쑤(대표 김양균)'가 타악콘서트 '락으로'를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퓨전타악 공연의 진수를 보여줬다.
광주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삼도설장구를 기타와 조합한 '바이러스', 사물놀이와 물과 불의 만남 '질주', 깊은 울림이 있는 북과 불의 퍼포먼스 '구름 위의 산책', 아리랑을 재창조한 공감과 소통의 '축제'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차일헌 이사 모친상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김정희 운영위원장 차남 결혼
- 정봉남 운영위원, 순천 '기적의도서관' 관장 선임
- 이상배 회원,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시설운영본부장 영전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구승연(공무원)
- 김호인(교직원)
- 위주영(회사원)
- 이상배(공무원)
- 정경수(교사)
- 함성철(교사)
- 김호균(공무원)
- 송영희(공무원)
- 윤봉란(회사원)
- 이이남(작가)
- 주남식(공무원)
- 황용하(교사)
- 안선영(회사원)

신규평생회원 "환영합니다"

- 김병연(상무중 교장)

0721심미안창29호본문 1904.6.17 19:47 페이지48 CTP175

〈 임 원 현 황 〉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강동완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희 시인,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이 사〉
김나복 변호사
김대현 전남대 교수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김병기 전남대 교수
김윤기 전 아트광주 운영감독
김하림 조선대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주필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교수
선현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양형렬 국제로타리 전 총재
양혜령 치과의사
오견규 화가
윤만식 광주민예총 대표
이민원 광주대 교수
이연수 광주MBC 제작위원
이재의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소장
이칠우 전남대 교수
정현애 전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조원탁 동신대 교수
지형원 문화통 대표
차일헌 세무사, 전 조선대 교수

〈감 사〉
천형욱 변호사
염낙귀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정희 시인,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승권 조선대 교수

위 원
김용민 송원대 교수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팀장
민인철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향준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원
정봉남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
조덕진 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
허달용 화가, 전 광주민예총 대표
한예원 조선대 교수

〈시민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도일 문화평론가

위 원
김양균 얼쑤 대표
김혜선 아시아문화개발원 연구원
이병욱 전남문화산업진흥원 기업유치팀장
정민룡 북구문화의 집 관장
정헌기 디자인 바우하우스 대표
주 홍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윤현석 (주)컬쳐네트워크 대표
나선후 미술평론가
정순기 광주시연극협회 회장
안태기 광주대 교수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

지역문화진흥회

〈회장〉
강동완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부회장〉
오형근 오형근성형외과 의사
김경옥 약사

〈진흥이사〉
김상집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 성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영주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용혁 (주)HOL 대표이사
이 강 민족경제연구소 소장
이대성 (주)웰매직 대표
이성일 전 호남매일신문사 사장
이원형 호남대 교수
정병수 남부대 교수
정선택 (주)대운광고 대표
정재원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이사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목포지회장
황재익 (주)BioOrigin 대표이사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원중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실장
위주영 전임연구원
김민정 사업팀장
강리정 총무간사

편 집 후 기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워라’ 율곡 선생이 쓴『격몽요결』의 제1장 첫머리에 나오는 글귀이다.
목표를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선 6기의 출발! 초지일관(初志一貫), 시종여일(始終如一) 하기를 바란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틀린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결과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전력질주를 하는 것과 같다.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도 함께 마음을 나누자.
옥고를 주신 필자 분들, 잠시 휴가 중인 김민정 팀장님을 대신해 애써주신 김원중 실장님! 모두 이 여름 멋진 꿈 이루시길.